

# 제5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보고서

[Embargo] 본 내용에 대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사, 온라인 등에서는 2017년 7월 21일(금) 16:00 이후에, 신문지상에서는 7월 22일(토)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본 여론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에 있습니다.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 NPO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협력]

- 한국 : 한국리서치
- 일본 : 輿論科学協會

2017년 7월

## 조사개요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과 일본의 비영리단체인 겐론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여론조사를 2017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현황 및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조사 결과는 2017년 7월 29일에 개최되는 한일 양국 간의 민간 교류의 장인 “한일 미래대화”에서도 발표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조사는 한국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03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9.8%, 여성이 50.2%이며,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4.8%, 고졸 37.6%, 전문대학 재학 이상이 47.7%이다.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29세가 17.6%, 30세에서 39세가 17.4%, 40세에서 49세가 20.5%, 50세에서 59세가 19.8%, 60세 이상이 24.5%이다.

한편, 일본의 조사는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8.6%, 여성이 51.4%이며,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8.3%, 고졸이 46.5%, 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이 19.1%, 대졸이 22.2%, 석사 과정이 1.8%, 기타가 0.7%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이 2.3%, 20세에서 29세가 12.1%, 30세에서 39세가 14.8%, 40세에서 49세가 17.3%, 50세에서 59세가 14.5%, 60세 이상이 39%이다.

#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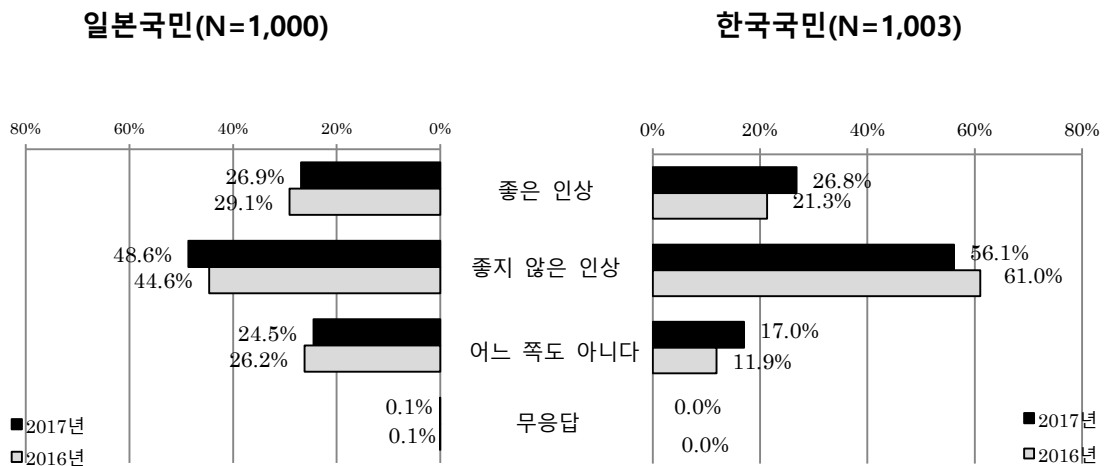
## 1-1.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작년에 이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다시 악화로 돌아섰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고 응답 한 사람은 56.1%로 2015년 72.5%, 2016년의 61%에 이어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으며, 부정적 응답은 올해에 50%대까지 낮아졌다. “좋다”고 응답 한 사람도 지난해 21.3%에서 26.8%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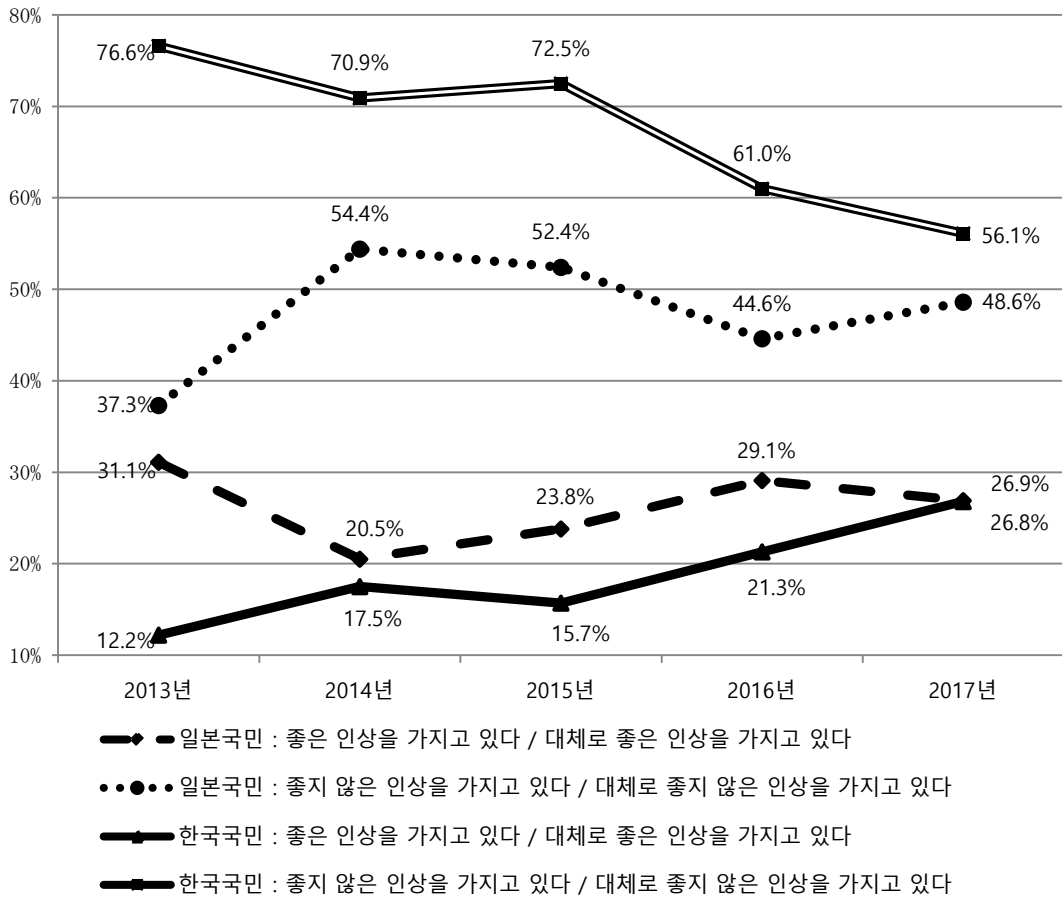
일본인은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대체로 좋지 않다”를 포함, 이하 동일)고 응답 한 사람은 48.6%로, 지난해 44.6%에서 올해는 다소 악화되었다. 본 조사에서 “좋지 않다”라는 응답은 2013년 37.3%에서 2014년 54.4%, 2015년 5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지난 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선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좋다”(“대체로 좋다”를 포함, 이하 동일)도 26.9 %로 지난 해의 29.1%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림1. 상대국에 대한 인상】



※ 좋은 인상은 “좋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를, 좋지 않은 인상은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를 합한 수치.

【그림2. 상대국에 대한 인상 (5년간 추이)】



## 1-2.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양국 국민 모두에게 “역사”와 “영토 갈등”이 상대국의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데 대해, 한국인은 일본인의 국민성을, 일본인은 한국의 현대 문화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이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침략 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난해(76.3%)보다 증가하였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70.7%(작년 70.1%)로, 두 가지 이유가 70% 이상으로 예년과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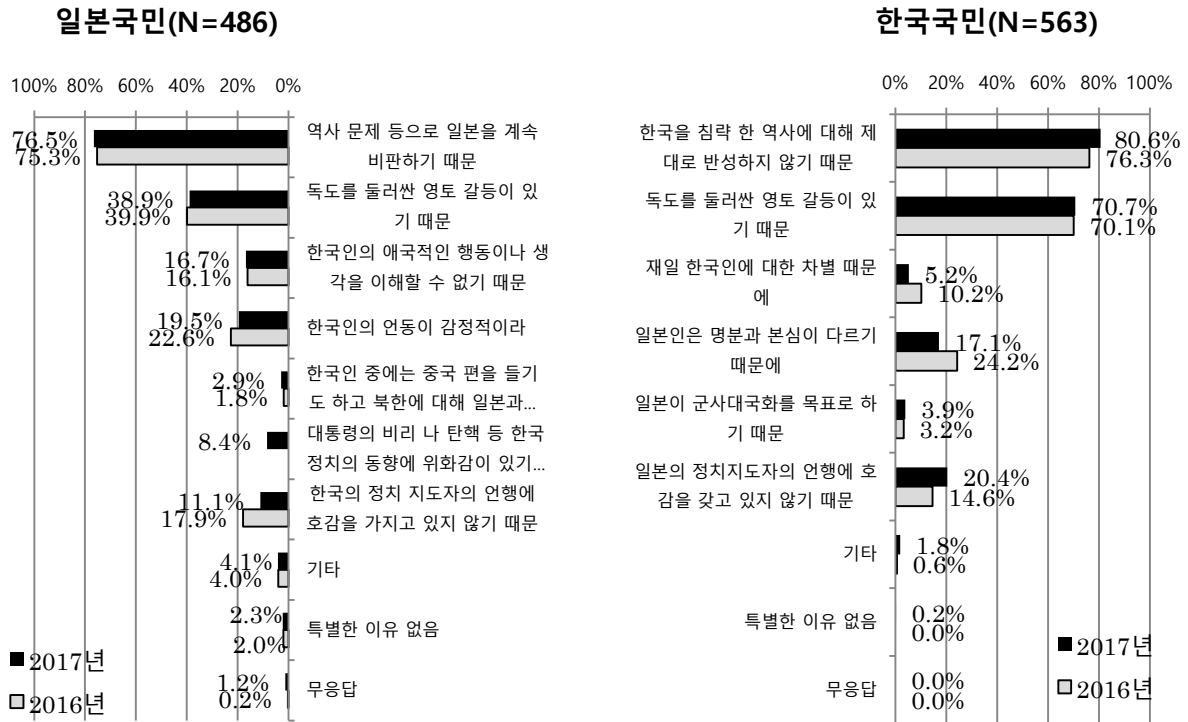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이유는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이 76.5%로 지난해 (75.3%)에 이어 70%를 넘어 압도적이다. 여기에 “영토 갈등”이 38.9%(작년 39.9%)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한 해 동안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일본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지난해 14.6%에서 20.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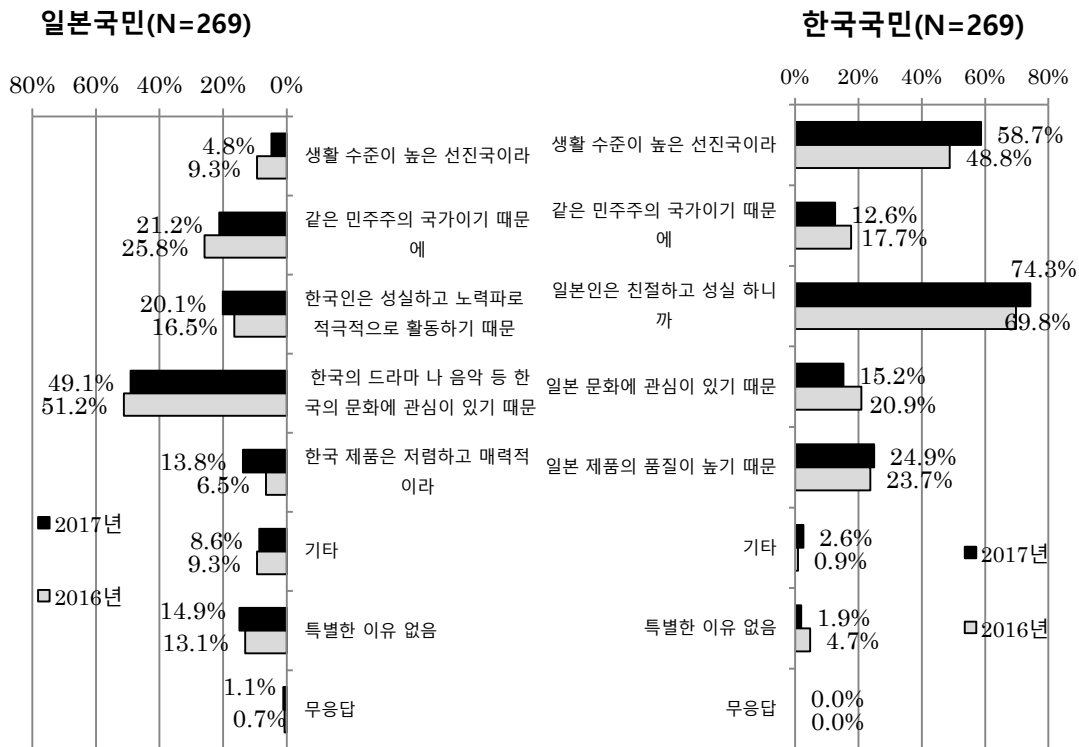
반면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 “일본인은 친절하고 성실 하니까”라고 응답한 사람이 74.3%(작년 69.8%)로 70%를 넘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에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48.8%에서 10%포인트 증가하여 58.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재작년의 8.9% 응답의 거의 두 배로 증가한 17.7%의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응답은 올해 다소 감소하여 12.6%였다.

일본인의 경우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등에 관심”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작년 51.2%)로 가장 많았고, 지금까지의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일수록 그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림3.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림4.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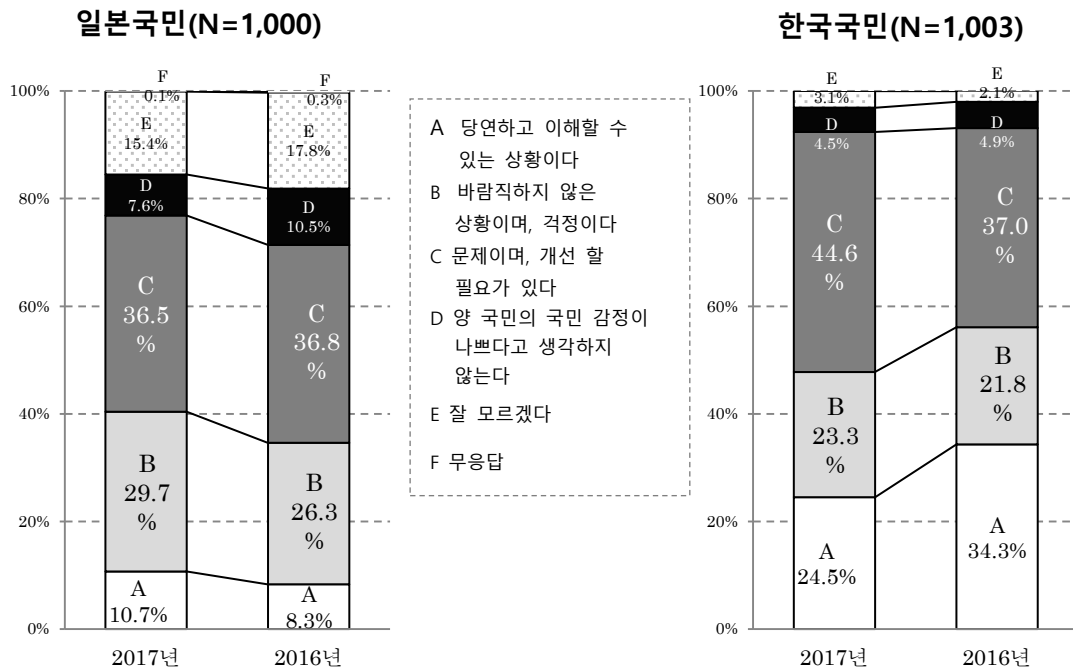
### 1-3. 양국 간 국민감정에 대한 인식

한일 양 국민의 70% 가까이가 국민감정의 현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처럼 판단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여전히 나쁜 상황에 대해, 한국인은 “문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4.6%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응답(37%)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 23.3%(2016년 21.8%)를 더한 67.9%의 한국인이 현재의 양국 국민감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8.8%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응답한 한국인도 지난해 34.3%에서 올해는 24.5%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인의 29.7%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26.3%)보다 높은 수치이다. “문제이며,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36.5%(작년 36.8%)를 합하면 66.2%로 60% 이상의 일본인이 국민감정의 현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 인식】



## 2.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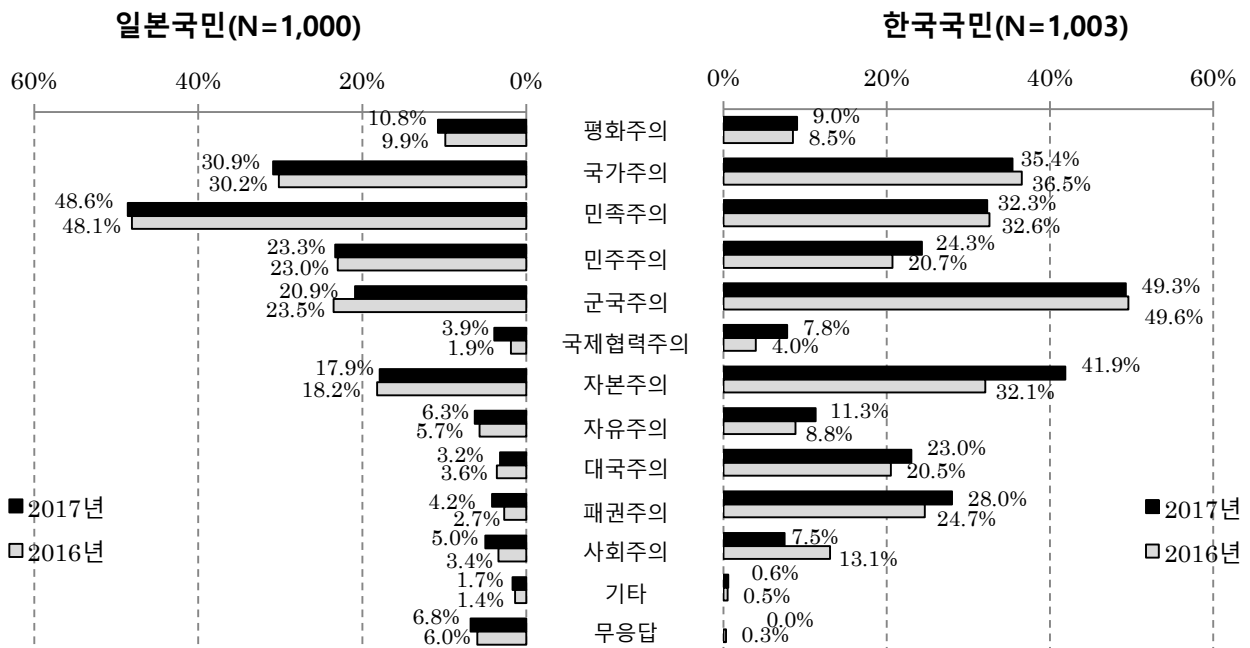
### 2-1.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절반은 현재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일본인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한국을 “민족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상대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20 %이다.

한국인 중에서 현재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9.3%(작년 49.6%)로 가장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조사 시작 이후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에 “자본주의”가 지난해 32.1%에서 4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23.3%(지난해 23%)로, “군국주의”(20.9%, 지난해 23.5%)를 제치고 3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사람은 24.3%로 지난해의 20.7%를 웃돌았지만, 예년처럼 20% 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인 중에 한국을 “민족주의”라고 평가한 응답은 48.6%로 2016년 48.1%을 넘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응답이 30.9%(작년 30.2%)로 뒤를 이었다.

**【그림6.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 3.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 3-1.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일 양 국민의 60% 정도가 현재의 한일관계를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변함 없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지만, 한국인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도 증가하였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쁘다”와 “대체로 나쁘다”의 합계, 이하 동일)라고 인식하는 한국인은 65.6%로 지난해 62.3%보다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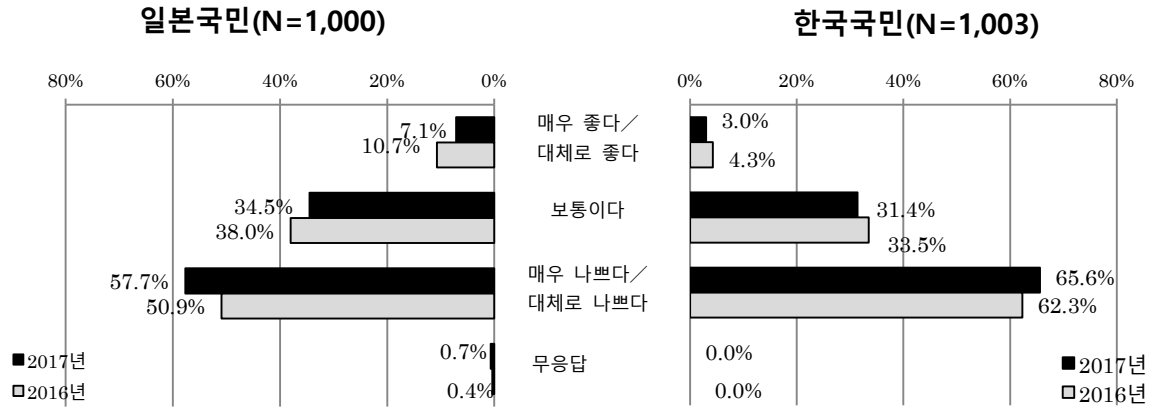
일본인도 “나쁘다”는 인식이 57.7%로 2014년 73.8%, 2015년 65.4%에서 지난해 50.9%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올해는 다시 악화됐다.

향후 한일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한국인은 49.7%(2016년 52.1%), 일본인은 45.2%(2016년 49.0%)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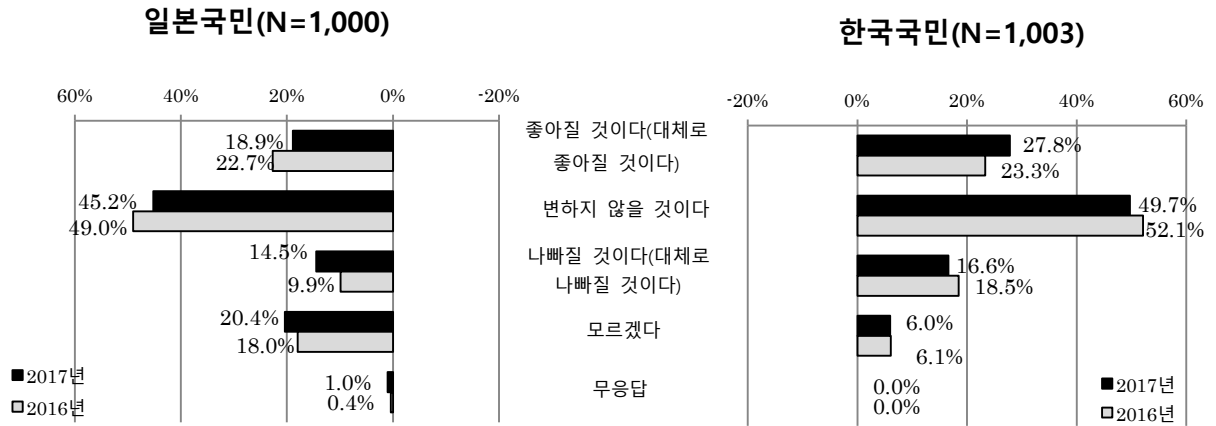
다만 일본인 중에는 향후 한일관계가 “나빠질 것”(“대체로 나빠질 것” 포함)이라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리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일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일본인이 지난해 9.9%에서 14.5%로 증가했지만, 한국인은 18.5%에서 16.6%로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좋아질 것”(“대체로 좋아질 것” 포함)이라는 응답은 일본인이 18.9%로 지난해의 22.7%보다 감소했지만, 한국인은 27.8%로 지난해 23.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7.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그림8.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



### 3-2.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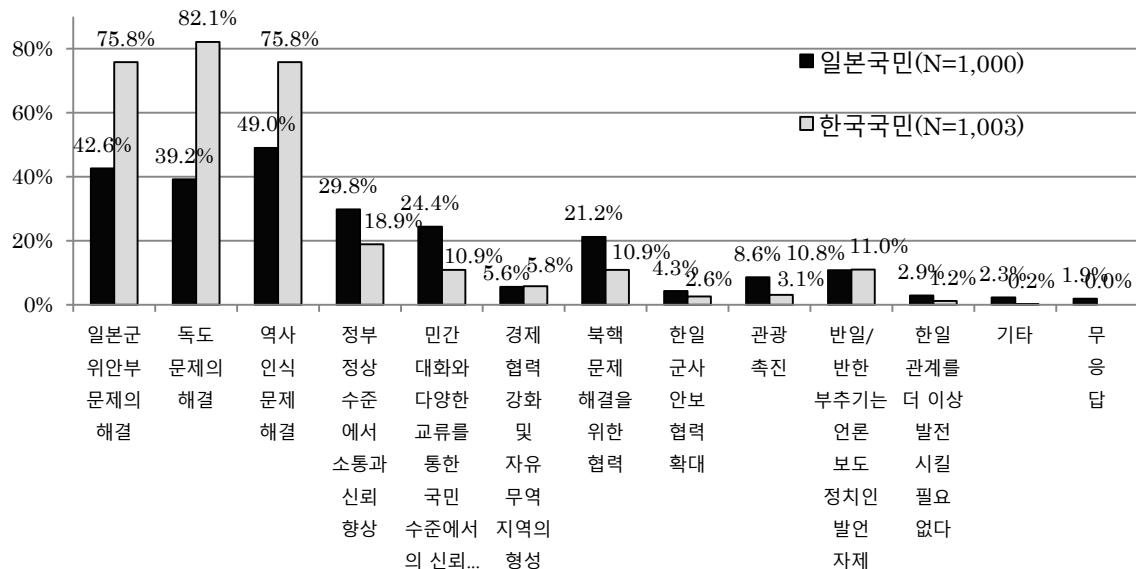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인은 “영토”, “위안부”, “역사”에 대한 노력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그 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화, 신뢰관계”, “민간 차원의 대화, 신뢰관계” 등 해결 과제를 꼽으면서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의 한일협력이 한일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10%로 나타났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은 “독도문제의 해결”을 82.1%(2016년 81.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75.8%(2016년 75.7%),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이 75.8%(2016년 74.9%)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인은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49%(2016년 46.5%)로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이어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지난해 29.6%에서 13%포인트 증가해 42.6%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이 39.2%(지자체 39%), “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의사 소통과 신뢰의 향상”이 29.8%(지자체 31.4%), 신설된 “민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국민 수준에서의 신뢰 구축”이 24.4%로 나타났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과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일본인은 21.2%(2016년 19.5%)가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10.9%(지자체 7%)에 그치면서, 북핵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 과제로 기대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9. 한일 양국민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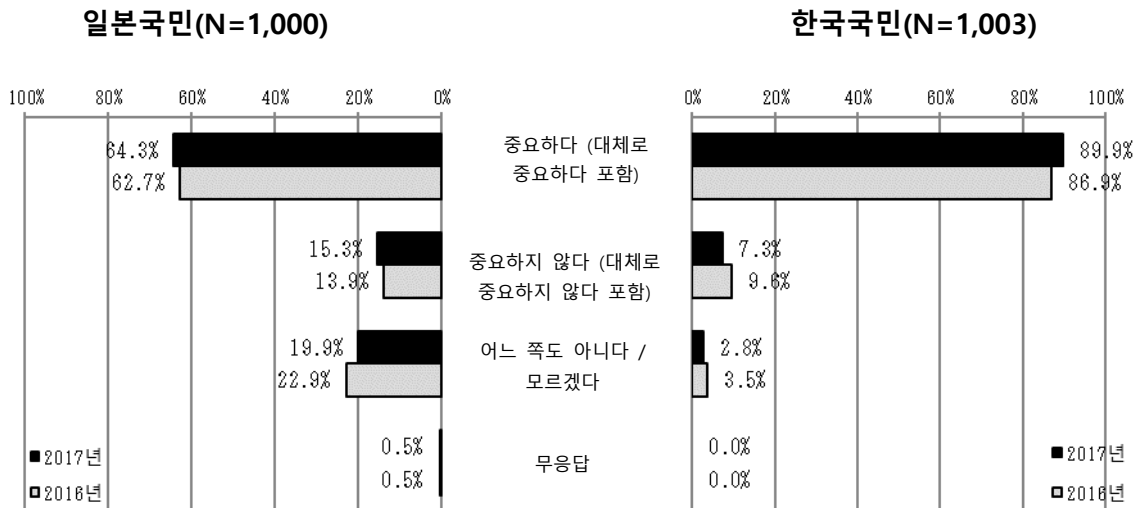
### 3-3.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작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90% 일본에서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를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포함)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89.9%(작년 86.9%)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9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일본인은 64.3%(작년 62.7%)로 60%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포함)는 응답을 보면, 한국인은 7.3%(작년 9.6%), 일본인은 15.3%(작년 13.9%)에 불과하며, 양국 국민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10 한일관계의 중요성】



### 3-4. 중국 대비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한일관계와 대중국관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람 모두 양 국민의 약 50%가 “모두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으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 가까이 되며,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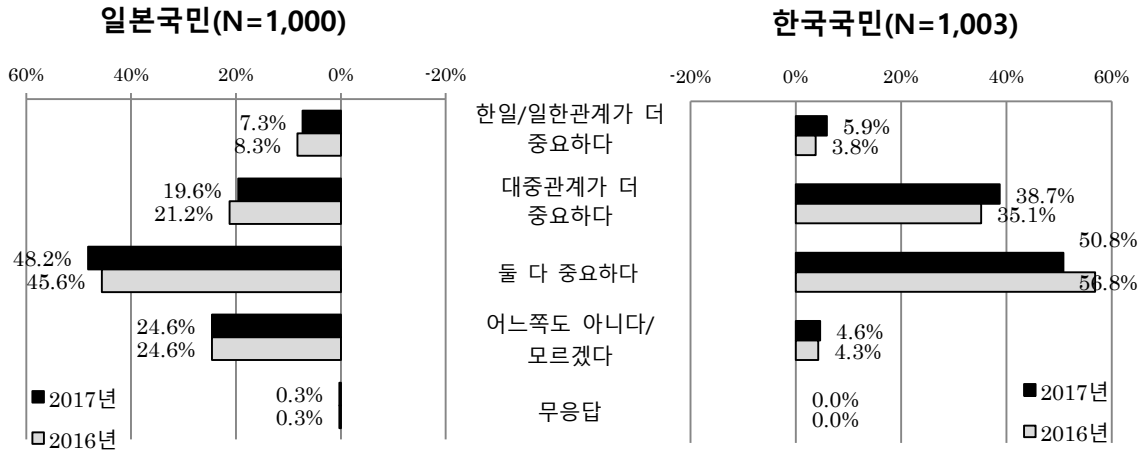
한국인은 한일관계와 한중관계를 비교하는 질문에서 50.8%로 과반이 “모두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의 56.8%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한일관계보다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0%에 가까운 38.7%(2016년 35.1%)이며,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5.9%(2016년 3.8%)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비교하는 질문에서 “모두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48.2%(2016년 4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일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19.6%(2016년 21.2%)였으며,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7.3%(작년 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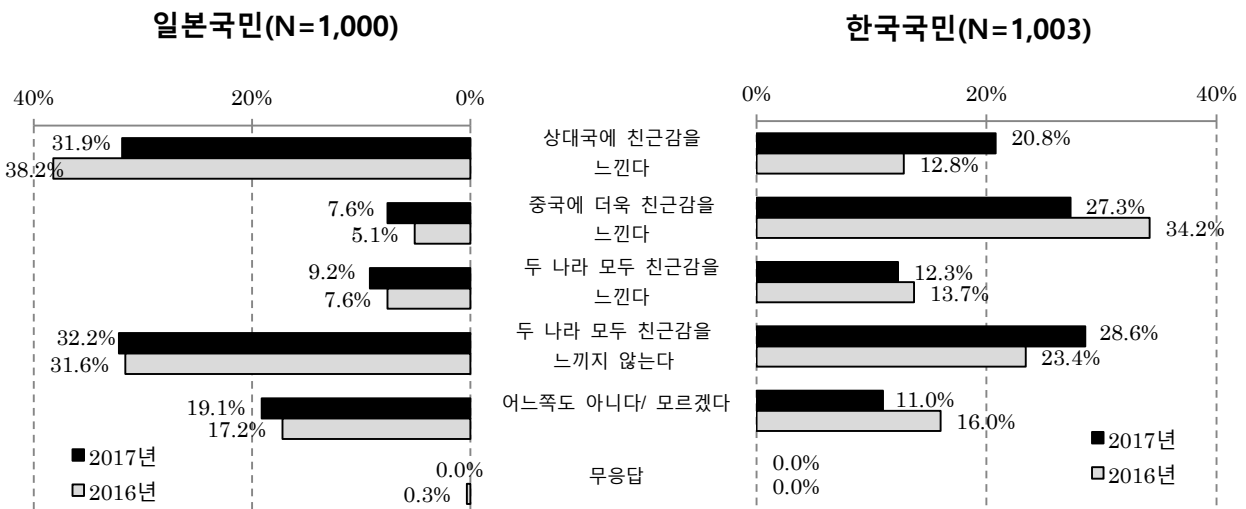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친근감 질문에서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28.6%(작년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는 “중국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올해는 27.3%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 12.8%에서 올해 20.8%로 증가하였다.

일본인은 “모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2.2%(2016년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3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던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올해 31.9%로 감소하였으며 두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그림11. 한일관계와 대중국관계의 중요성】



【그림12.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 3-5.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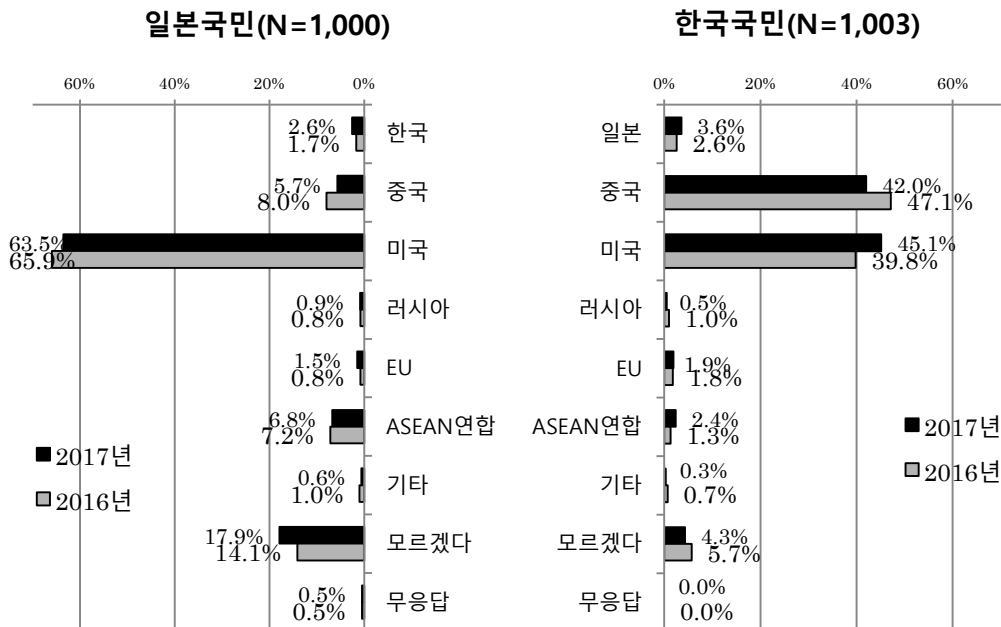
자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본인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한국인은 동맹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중시하고 있다.

자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자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결과, 한국인은 2016년에는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39.8%)보다 "중국"(47.1%)을 꼽는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는 역전되어 "미국"이 45.1%, "중국"은 42.0%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국가나 지역에 비해 이 두 나라에 대한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인은 동맹국인 "미국"이 63.5%(작년 65.9%)로 다른 응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난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은 "중국"이었지만 8.0%에서 5.7%로 감소하였으며, 6.8%(2016년 7.2%)가 응답한 "ASEAN국가"에 밀려났다.

이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3.6%(2016년 2.6%)였으며, "한국"이라고 답한 일본인은 2.6%(2016년 1.7%)에 불과했다.

【그림13.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나 지역】



## 4. 민간교류

### 4-1.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일본인의 경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응답과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양분되어 있다. 반대로 한국인의 경우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70.0% 가까이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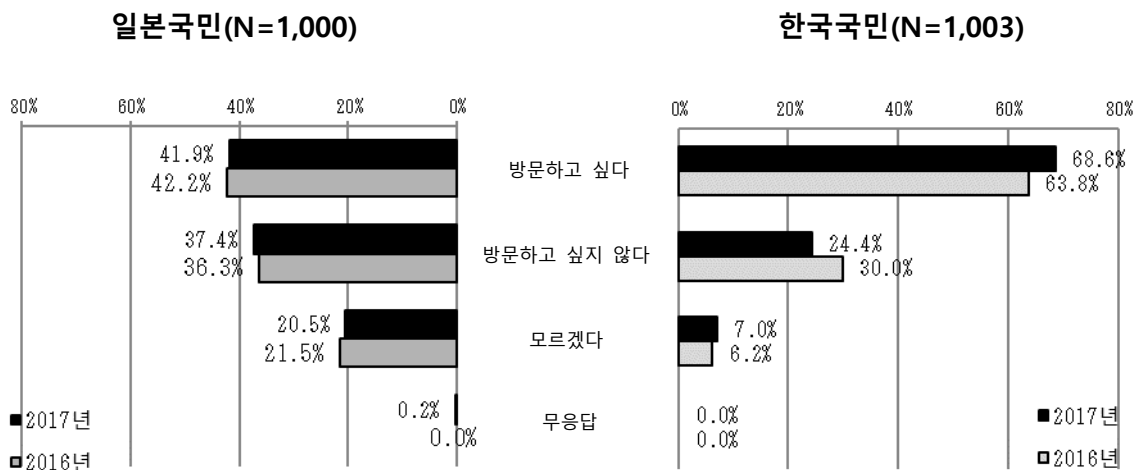
일본에 “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68.6%로 지난해 63.8%에서 증가하여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지난해 30.0%에서 24.4%로 감소하는 등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가고 싶다”로 응답한 일본인은 41.9%(2016년 42.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37.4%(2016년 36.3%)로 나타나, 두 개의 상반된 응답으로 양분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상대국에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일본인은 “자연과 관광지 방문”(64.4%, 2016년 59.5%), “쇼핑”(60.1%, 2016년 55.5%), “역사 문화 유산 방문”(39.6%, 2016년 4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은 “자연과 관광지 방문”이 유독 높은 응답을 보여주면서, 2016년 79.2%에서 2017년 92.6%로 13%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림14. 상대국 방문의사】**





## 5.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

### 5-1.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 국민의 인식

지난 1년 동안 일본인은 “역사 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한일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는 낙관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역사 인식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견해가 약간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로 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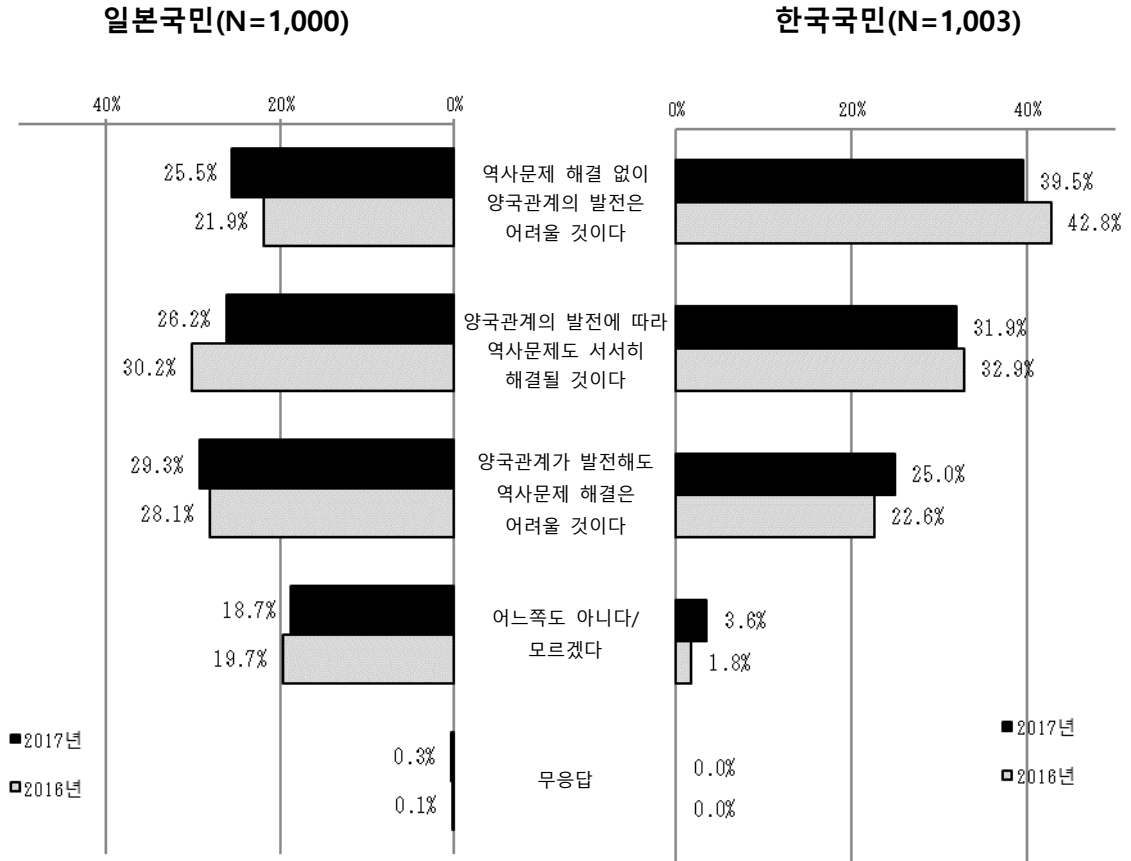
한일관계와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인은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39.5%(작년 42.8%)로 가장 높다. 또한 “한일관계가 발전해도,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22.6%에서 25%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인은 “한일관계가 발전해도,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관적인 견해가 29.3%(2016년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30.2%로 가장 높았던 “한일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는 낙관적 견해는 올해 26.2%로 감소했다.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역사문제를 양국 관계의 제약으로 보는 견해도 지난해 21.9%에서 올해 25.5%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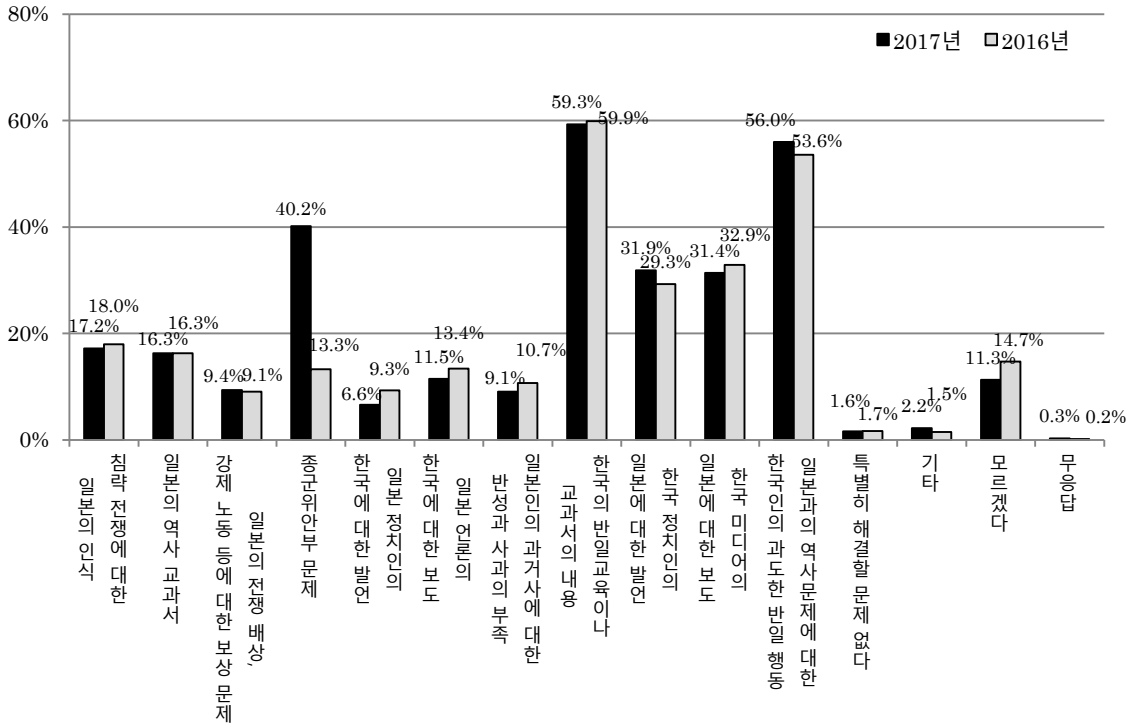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59.7%에서 올해는 69.6%로 10%포인트 상승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61%(2016년 71.9%),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60.3%(2016년 59.5%)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에 대한 응답률은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 외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응답은 “한국의 반일 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이 59.3%(2016년 59.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 행동”이 56%(2016년 53.6%)로 두드러진 응답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 해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응답은 지난해 13.3%에서 40.2%로 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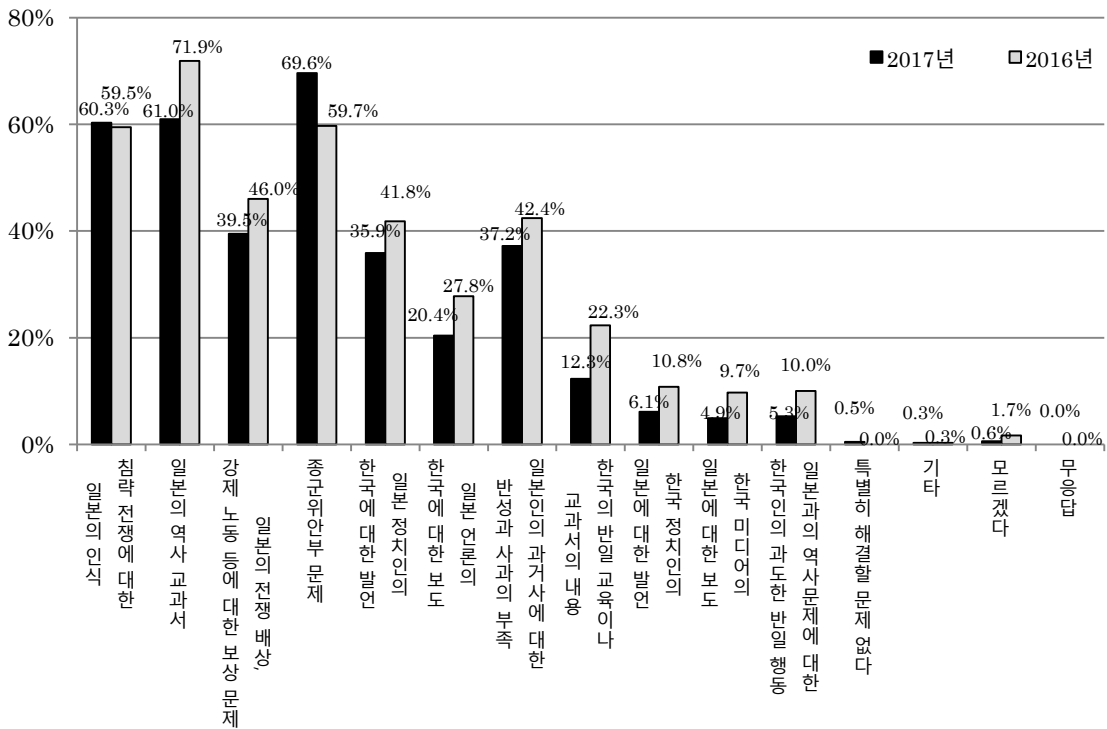
【그림15.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그림16. 한일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03)



## 5-2.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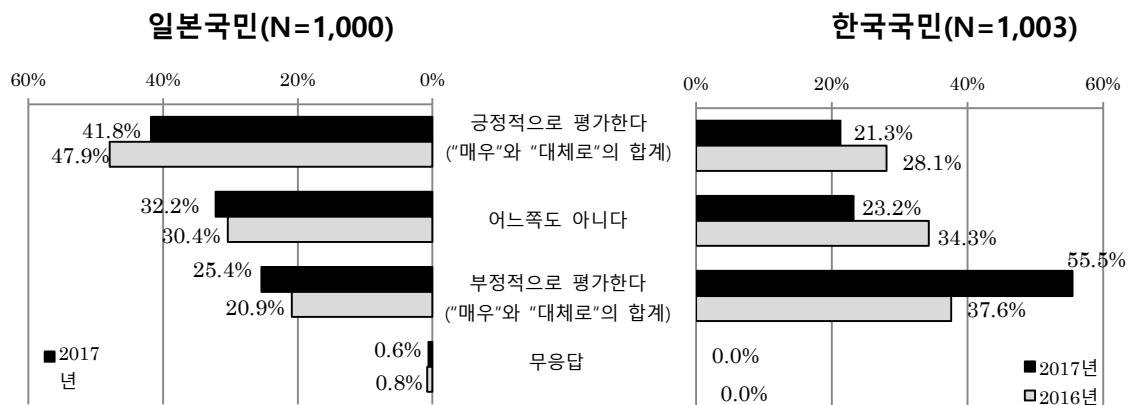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한국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함으로써 절반을 넘어섰으며, 일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작년과 같이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감소했다.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일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매우”와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일)이 41.8%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와 “별로”의 합계, 이하 동일)의 25.4%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단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47.9%에서 감소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20.9%에서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난해 37.6%에서 18%포인트 증가하여 55.5%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8.1%에서 21.3%로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측에만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의 이유를 물었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역사문제가 더 이상 한일관계를 방해해서는 안되니까”가 65.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한 항목은 “당사자인 위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7.7%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사과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9.6%,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 49.6%로 각각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그림17. 한일 위안부합의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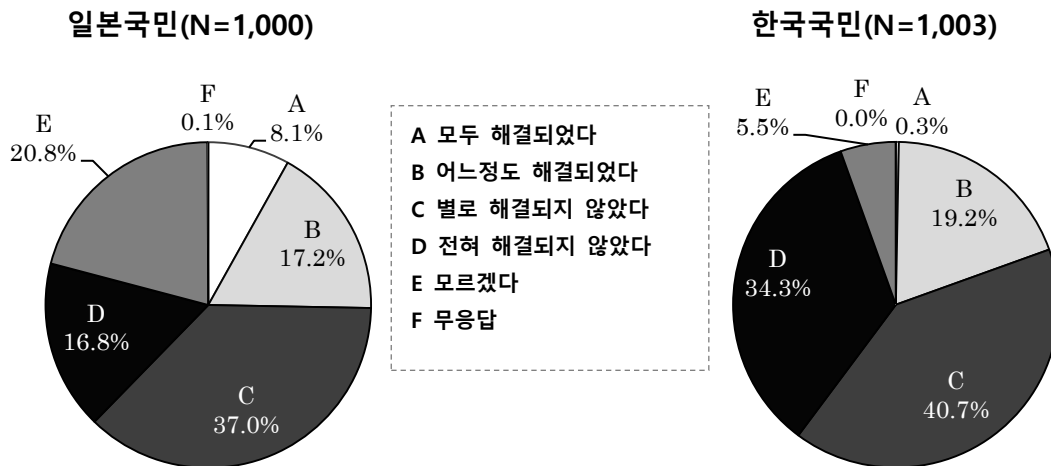
### 5-3.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한국인의 70%, 일본인의 50%가 한일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정부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전혀”와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일)고 응답한 한국인은 75.0%로 나타났으며 70%를 상회했다. “해결되었다”고 평가한 한국인의 응답은 19.5%로 약 20%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일본인은 53.8%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다.

【그림18.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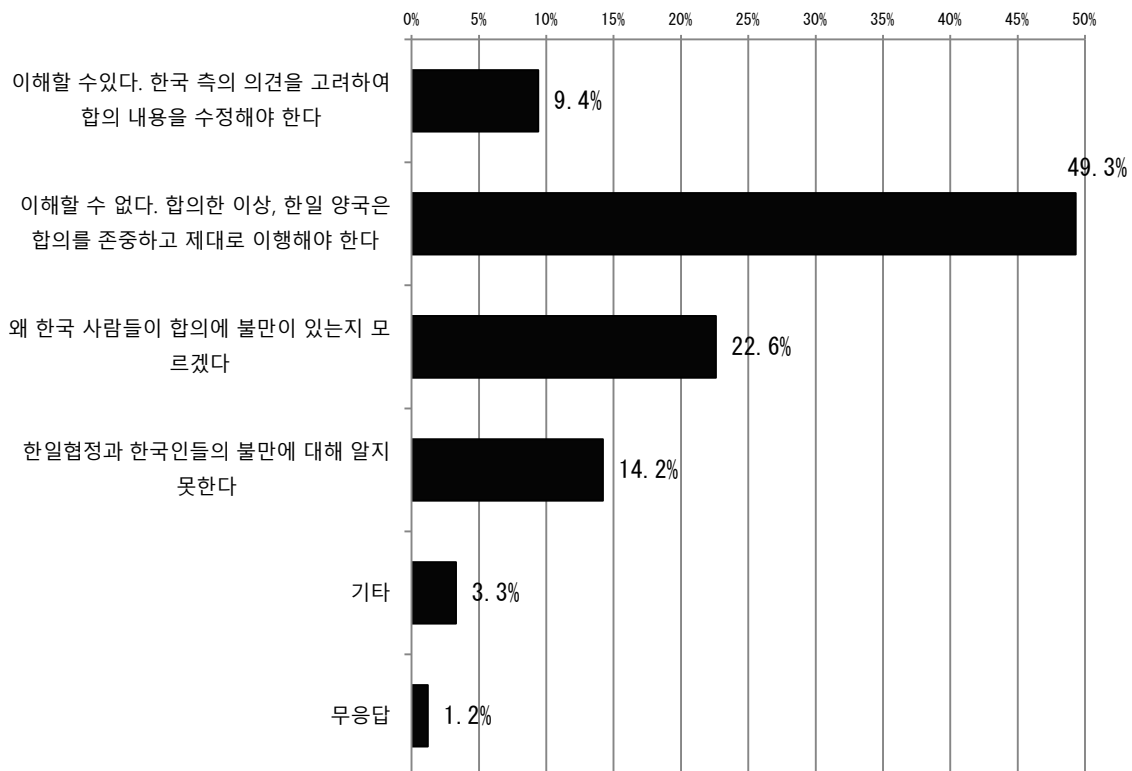


#### 5-4.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인식

일본인의 절반 가까이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한국인의 상당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합의 이행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측에게만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해할 수 없다. 합의를 맺은 이상, 한일 양국은 합의를 존중하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9.3%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 한국 사람들이 합의에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22.6%이며,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9.4%로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9. 한국인의 불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6. 정부간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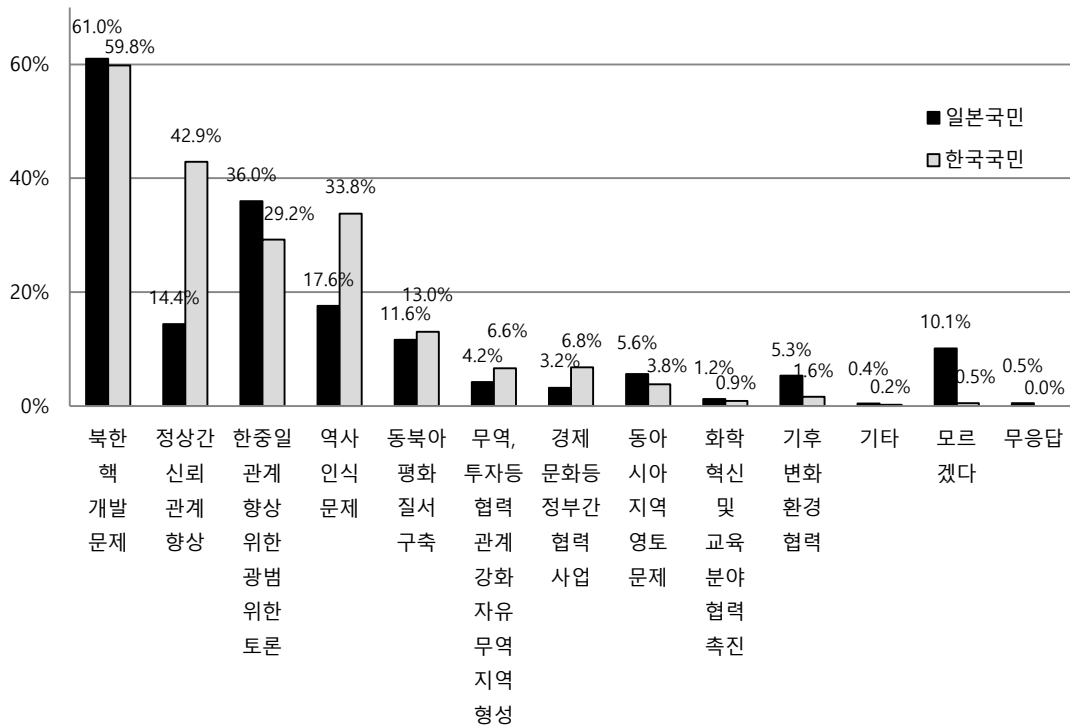
## 6-1. 한중일 정상회담의 논의 주제

한일 양국 국민들은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각각 60%의 응답을 보였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의 경우 “북한의 핵 문제”라는 응답이 지난해 38.4%에서 21%포인트 증가한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정상 간의 신뢰관계 향상”(42.9%, 2016년 42.6%)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가장 높았던 “역사 인식 문제”는 44.0%에서 33.8%로 감소하였다.

일본인은 “북핵 문제”라는 응답이 지난해 44.7%에서 16%포인트 증가한 61.0%로 두드러졌다. 이어 “한중일 관계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라는 응답이 36.0% (2016년 37.6%)로 뒤를 이었다.

**【그림20.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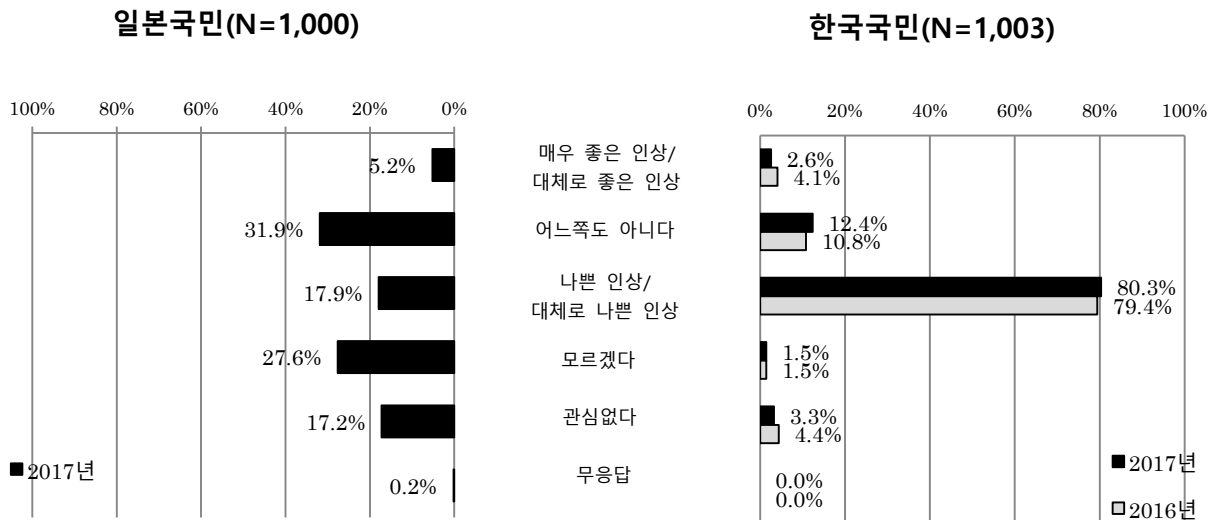
## 6-2.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한국인의 아베 총리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같이 80%에 달하고 있다. 일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80.3%(2016년 79.4%)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2.6%로 감소했다.

한편 일본인은 5월에 취임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묻자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31.9%, “모른다”가 27.6%로 60.0% 가까운 일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나쁜 인상”(“매우”와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일)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17.9%, “좋은 인상”(“매우”와 “대체로”의 합계, 이하 동일)은 5.2%였다.

【그림21.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 7.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 7-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한일 국민 모두 약 70%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10년 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약 20%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의 40%가 미국 등에 의한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40% 이상의 사람들이 군사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인은 “6자 회담 등 외교 노력”과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일본인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미북 직접 대화”를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군사행동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국 국민 모두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71.3%, 일본인의 68.9%, 한일 양국 국민의 약 70%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한국인은 “10년 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견해도 1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등에 의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한국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38.6%에 이르러 견해가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인은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16.2%를 웃돌고 있다. 단, “모르겠다”는 응답도 41.0%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한국인은 “6자 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26.1%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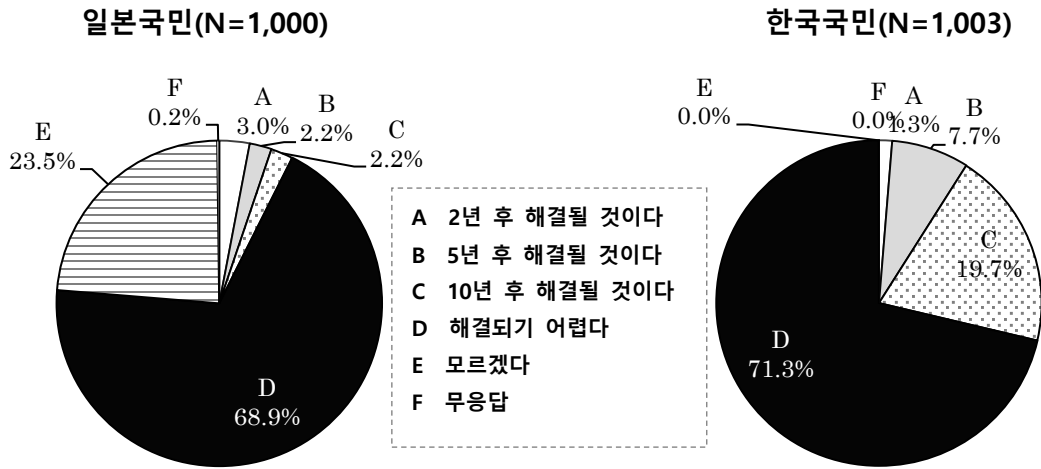
한편 일본인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대화”는 21.0%로 나타났다.

“군사 행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한국 4.9%, 일본 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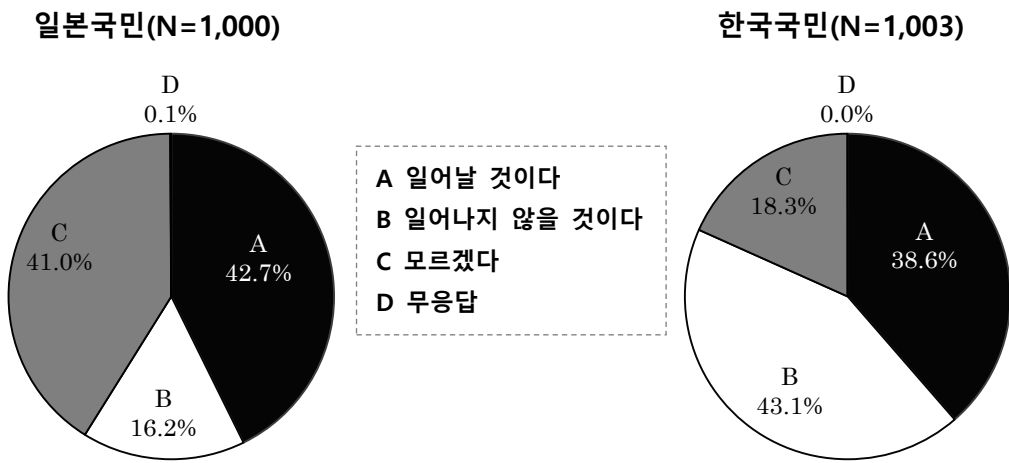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높게 응답한 “6자 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9.5%에 불과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도 13.8%에 그쳤다.

일본인이 가장 높게 응답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응답은 14.4%였으며,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대화”를 선택한 한국인은 12.1%로 모두 10%대에 머물렀다. 이렇듯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 간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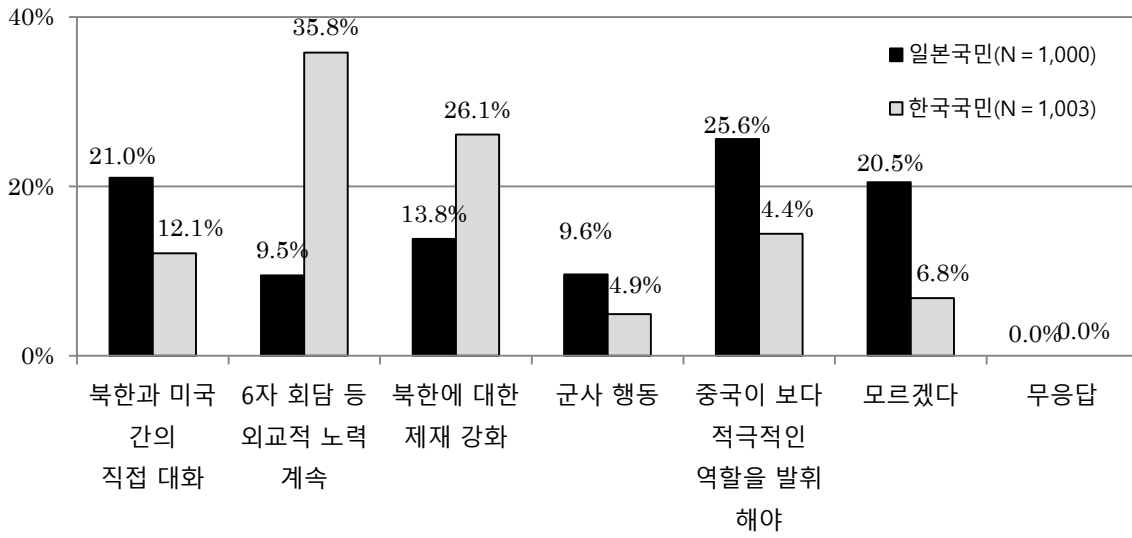
【그림22.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그림23. 북핵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



【그림24. 북한 핵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8. 한반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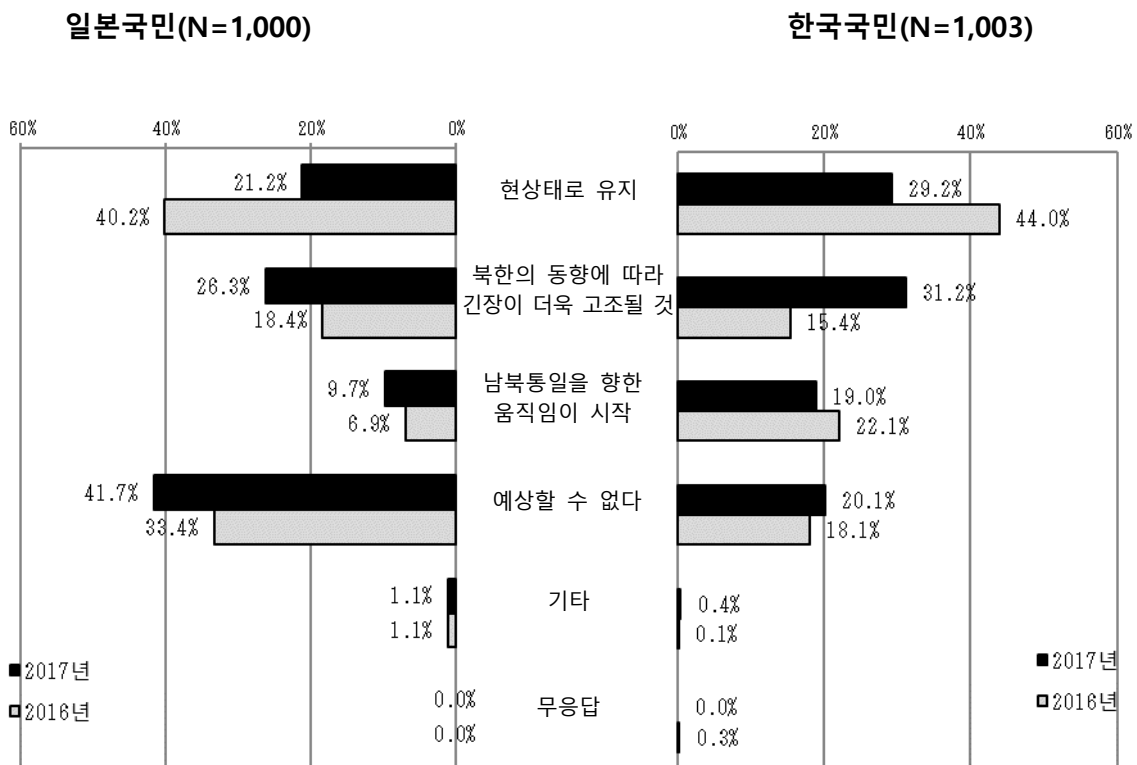
### 8-1. 10년 후 한반도의 미래

한일 양국 국민은 10년 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한의 동향에 따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지난해 가장 높았던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44.0%에서 29.2%로 15%포인트 감소하는 한편, “북한의 동향에 따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15.4%에서 31.2%로 두 배로 증가했다. “남북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0%(2016년 22.1%)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예상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7%(2016년 33.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장 높았던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40.2%에서 21.2%로 거의 절반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동향에 따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2016년에는 “남북한의 대립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조사)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는 26.3%로 증가하였다.

【그림25. 10년 후 한반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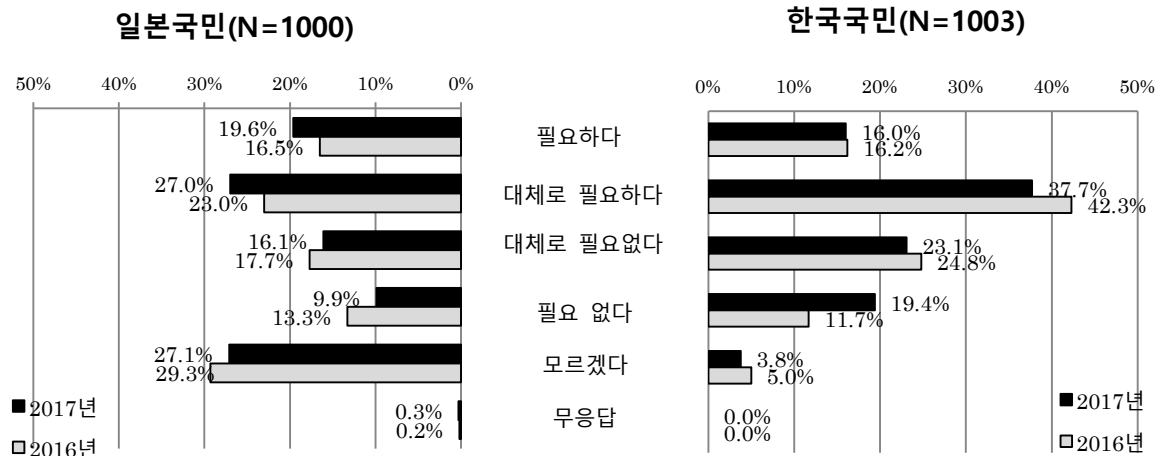
## 7-2.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

한국인의 절반 이상, 일본인의 40% 이상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 된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은 감소한 반면 일본인은 증가하였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 주한미군에 대해서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를 포함, 이하 동일)이 53.7%로 절반을 넘었으며 지난해의 58.5%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요없다”(“대체로 필요없다”를 포함, 이하 동일)는 응답은 지난해 36.5%에서 증가하여 42.5%로 40%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일본인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작년의 39.5%에서 46.6%로 증가하였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의 26%(지난해 31%)를 웃돌고 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27.1%(작년 29.3%)로 30%에 가까웠다.

【그림26.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



## 9.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 9-1. 군사적 위협과 한일 간의 군사분쟁에 관한 인식

한일 양국 국민의 80%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국인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27%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여전히 30% 존재하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에 관해서는, 한국인은 “수 년 이내에 일어난다”와 “미래에 일어난다”를 합치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30% 가까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일본인은 60%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인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79.5%(작년 80.4%)로 거의 80%에 육박한다. 뒤 이어 “중국”이 두번째로 예년과 같지만, 일본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72.8%에서 46.2%로 27%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러시아”도 지난해 50%에서 32.8%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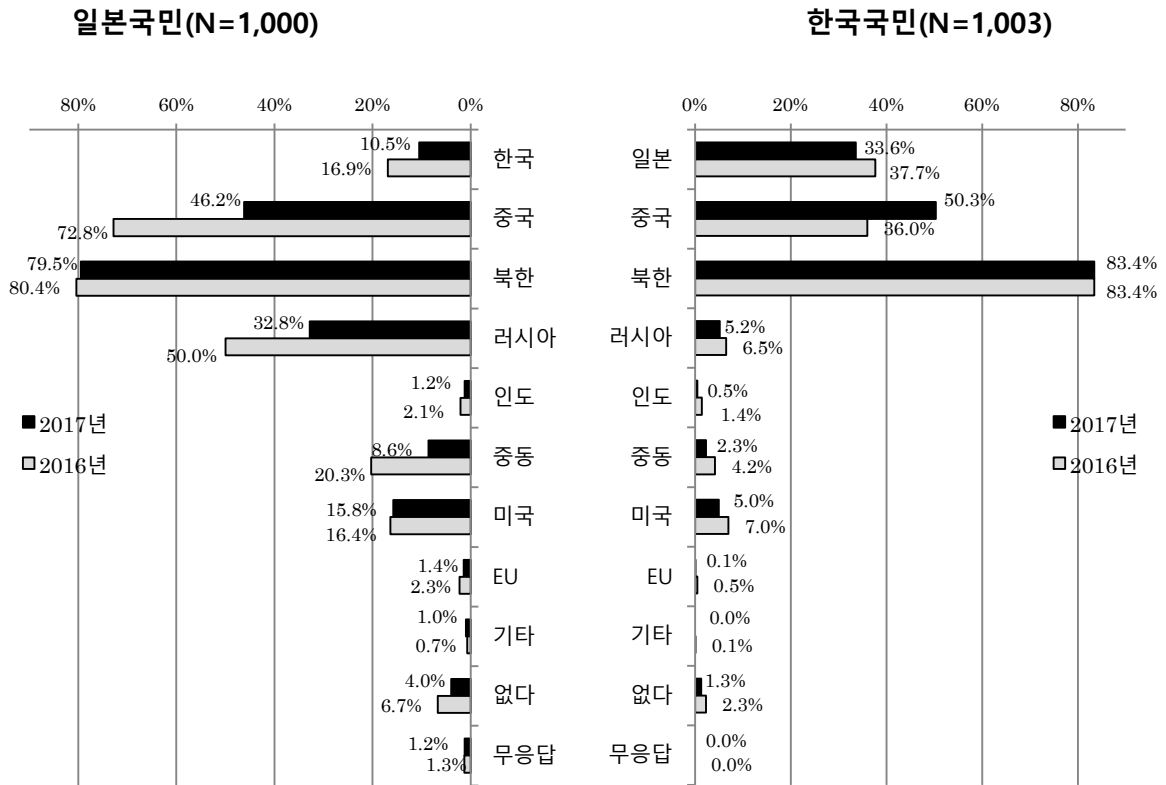
한국인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 83.4%(2016년 8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이 지난해 36%에서 50.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두 번째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일본”은 올해 세 번째가 되었지만, 33.6%(작년 37.7%)로 여전히 30%의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이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66.2%(2016년 60.1%)로 여타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 아직도 일본의 정치에서 모호한 태도가 남아 있기 때문”(51.6%, 2016년 48.6%), “일본 정치의 일부가 우경화 경향이 있기 때문”(34.7%, 2016년 4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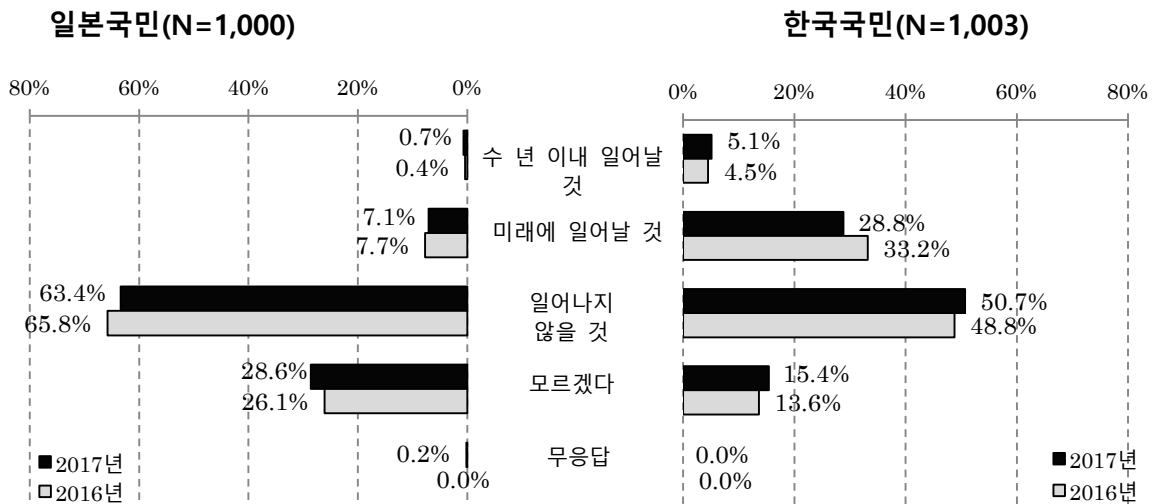
한일 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에 대해 일본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63.4%(2016년 65.8%)로 60%를 넘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수 년 이내에 발생한다”(0.7%, 2016년 0.4%),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7.1%, 2016년 7.7%)라는 응답을 합한 수치가 7.8%로 군사분쟁을 우려하는 일본인은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도 일본과의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0.7%(2016년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수 년 이내에 발생한다”(5.1%, 지난해 4.5%)와 “미래에 일어날 것”(28.8%, 지난해 33.2%)이라는 응답을 합한 수치가 33.9%로 일본과의 군사적 분쟁을 예상하는 한국인은 지난해(37.7%)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7.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및 지역】



【그림28. 한일 간 군사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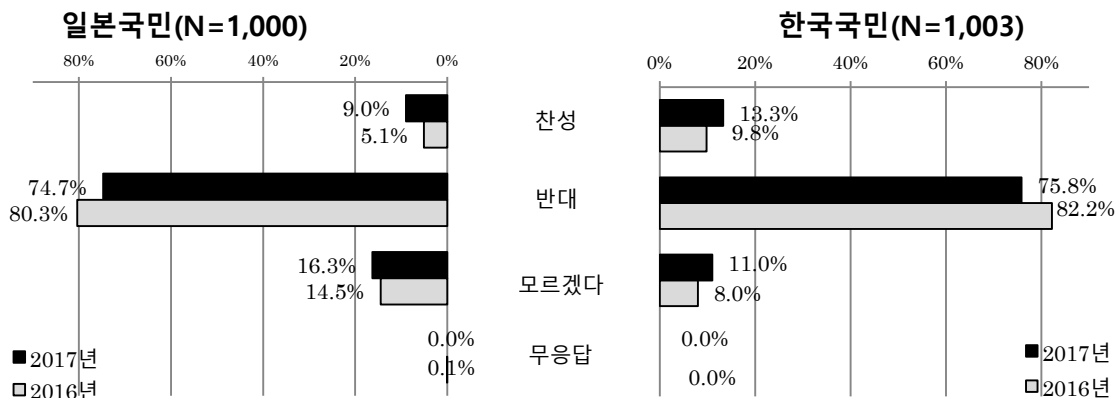
## 9-2. 한일 양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한일 양국의 70%를 넘는 사람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작은 수치이지만 “찬성”한다는 의견이 양국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은 8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지만, 70% 가까운 한국인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인은 자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작년의 59.0%에서 크게 증가하여 올해는 67.2%로 70%에 가까워졌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에서 26.7%로 9%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일본인의 78.8%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82.5%와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찬성”은 2.2%에서 3.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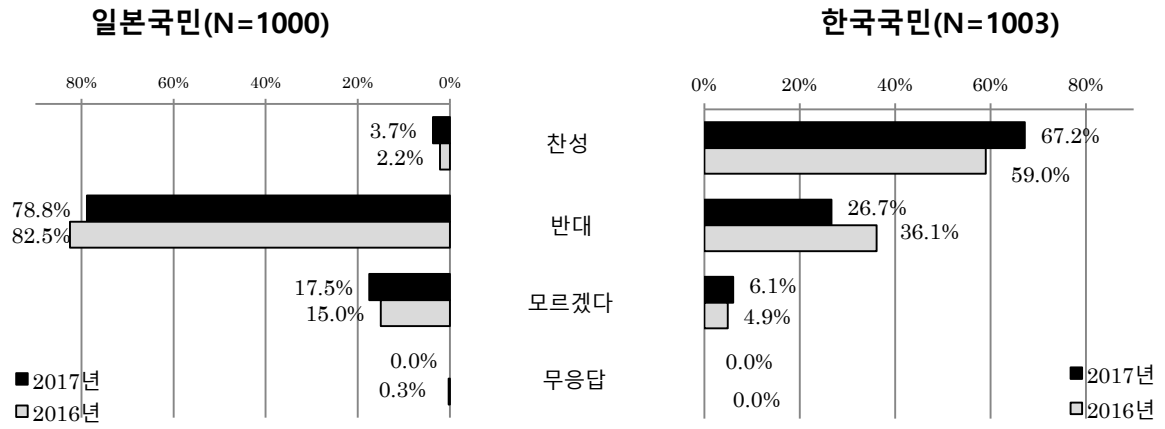
일본의 핵무장의 여부에 대해 일본인은 74.7%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80.3%)와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5.1%에서 9%로 증가했다. 한국인도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75.8%로 70%를 초과하고 있지만, 지난해(82.2%)보다는 감소하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9.8%에서 13.3%로 증가했다.

【그림29.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그림30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 10.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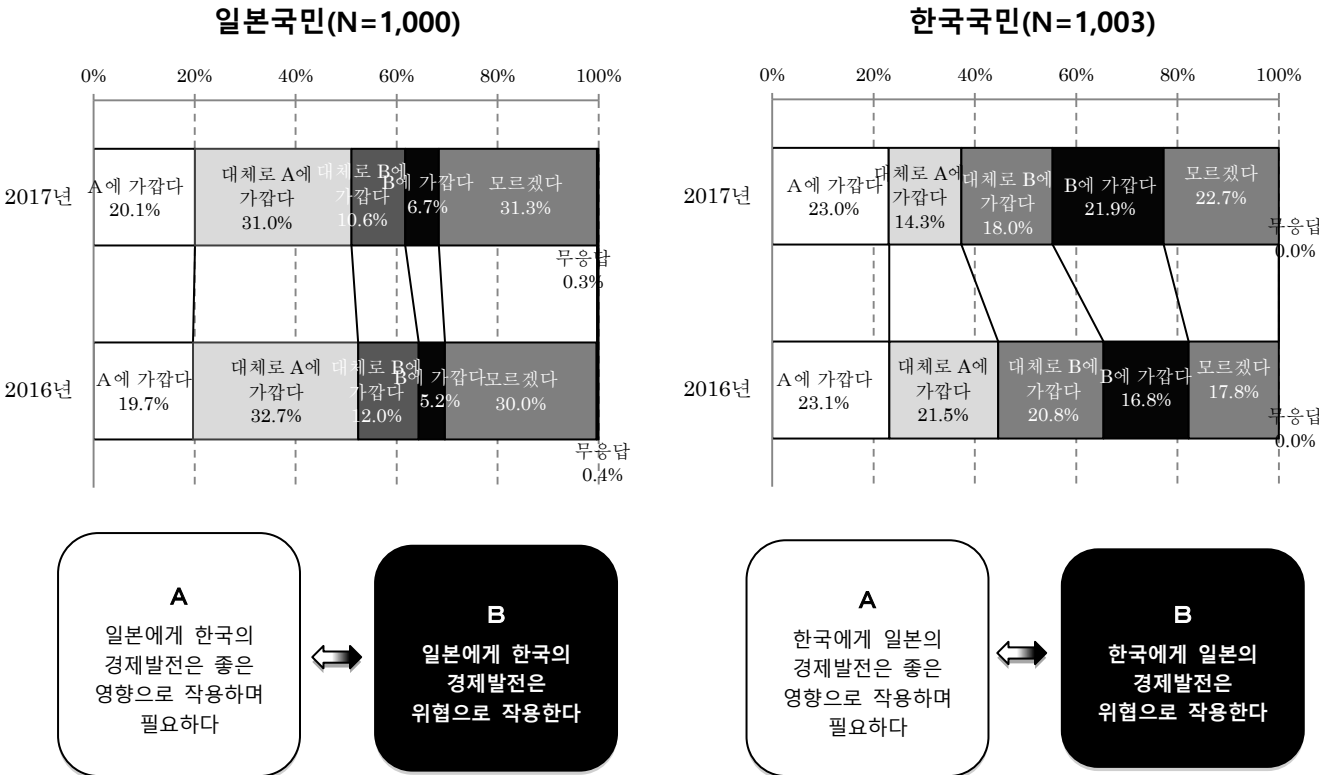
## 10-1. 한일 경제관계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한국인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에 있어서도 “장점”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의 경제관계에 대해 “일본에 있어 한국의 경제발전은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며 필요하다”(“대체로 그러하다” 포함, 이하 동일)라는 견해를 가진 일본인은 51.1%(2016년 52.4%)로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

한편, 일본의 경제발전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지난해 44.6%에서 올해 37.3%로 감소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발전은 한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대체로 위협이다”를 포함)라는 견해는 39.9%(작년 37.6%)로 증가하여 40% 가까이 나타났다.

【그림31. 한일 경제관계】



## 10-2.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 및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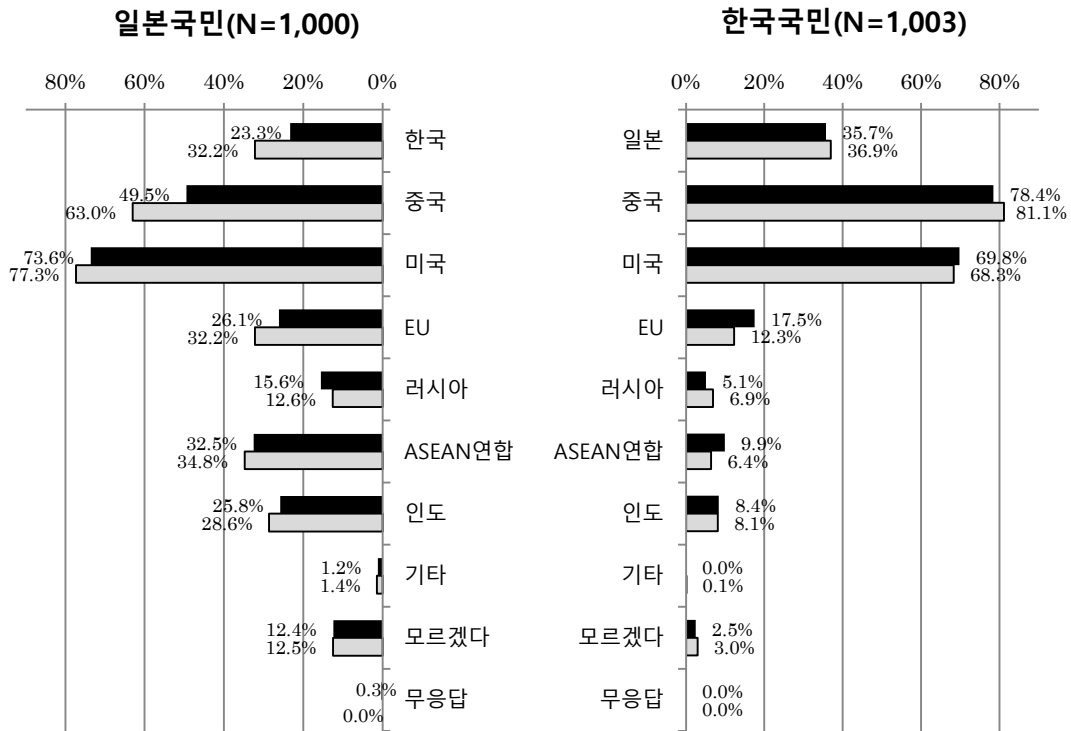
한국인이 “자국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미국”이라는 응답은 약 70%에 이르렀다. “일본”이라는 응답이 35.7%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인은 주로 이 3개 국가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다.

일본인이 “자국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미국”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중국”도 이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ASEAN”, “EU”, “인도”, “한국”을 선택한 사람도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났다.

자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은 “중국”이 78.4%(2016년 8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으며, “미국”(69.8 %, 지난해 68.3%)이 그 다음을 뒤이었다. 경제에 관한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아지고, 중국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35.7%(2016년 36.9%)로 나타났다. 다만, 이 3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응답은 모두 10% 전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인은 73.6%(2016년 77.3 %)가 “미국”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응답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여주었다. “중국”이라는 응답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지난해 63.0%에서 올해는 49.5%로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 그 밖에도 “ASEAN연합”(32.5%, 2016년 34.8%), “EU”(26.1%, 2016년 32.2%), “인도”(25.8%, 2016년 28.6%), “한국”(23.3%, 2016년 32.2%)에 대해서도 20%에서 30% 정도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국가는 “러시아”(2016년 12.6%, 2017년 15.6%)였다.

【그림32.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 및 지역】



## 11.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영향력

### 11-1.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중일의 영향력

향후 10년간 한중일이 아시아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 모두 “변함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향력이 “증가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작년을 크게 상회하여 30%를 넘는 사람이 일본의 영향력 증가를 전망했다.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변함 없다”라는 견해가 일본인은 40%, 한국인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견해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한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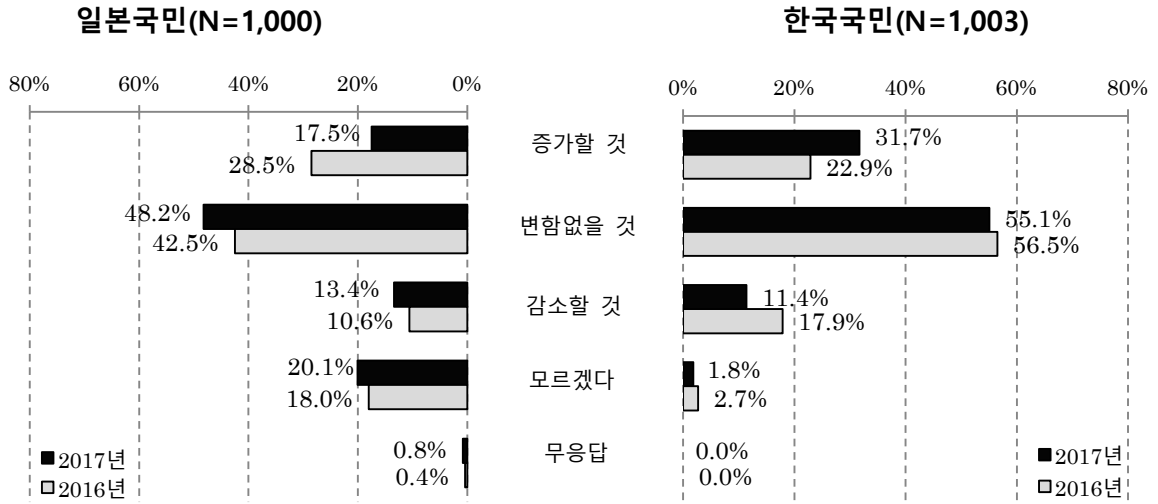
일본인은 향후 10년간 자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변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2%(2016년 42.5%)로 절반 가까운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지난해 28.5%에서 17.5%로 11%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인도 일본의 아시아 영향력은 “변함 없다”고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5.1%(2016년 56.5%)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응답하였다. 일본인과 달리,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는, 지난해 22.9%에서 올해 31.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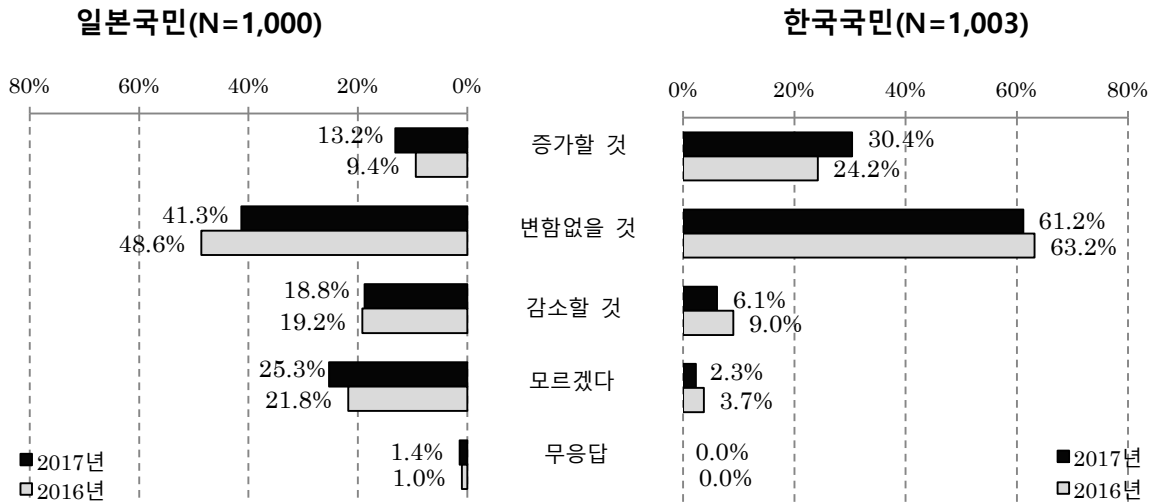
한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41.3%(2016년 48.6%)이 “변함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도 자국의 아시아에서 영향력에 대해 “변함 없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61.2%(2016년 63.2%)로 6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도 30.4%로 지난해(24.2%)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중국 아시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인의 74.2%(2016년 71.2%)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인도 같은 의견을 보여주었지만, 48.9%(2016년 51.9%)로 그 응답률은 2%포인트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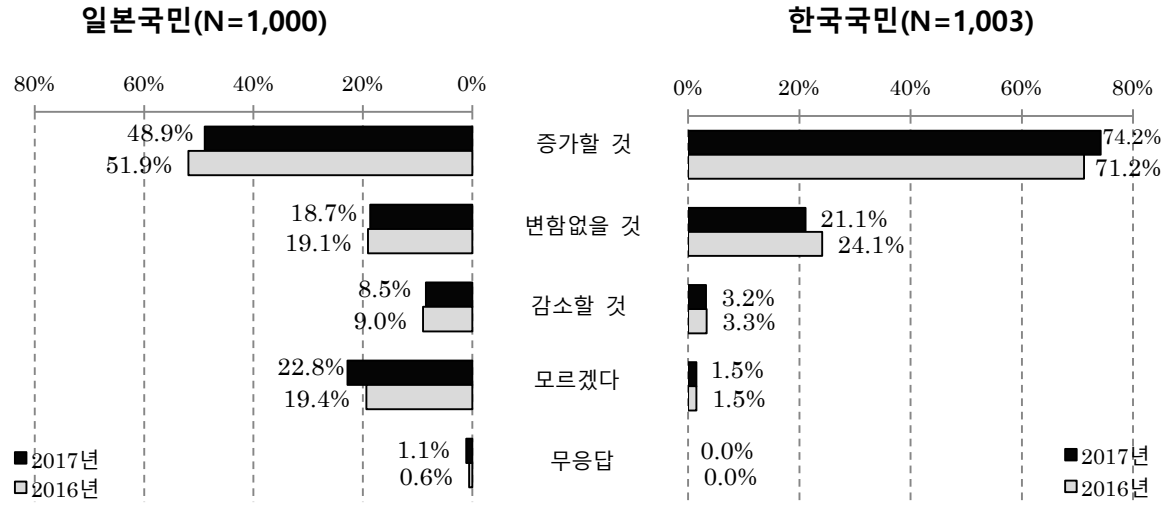
**[그림33.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의 변화]**



**[그림34.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의 변화]**



【그림35. 향후 10년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의 변화】



# 12. 양국의 미디어 보도 및 인터넷 여론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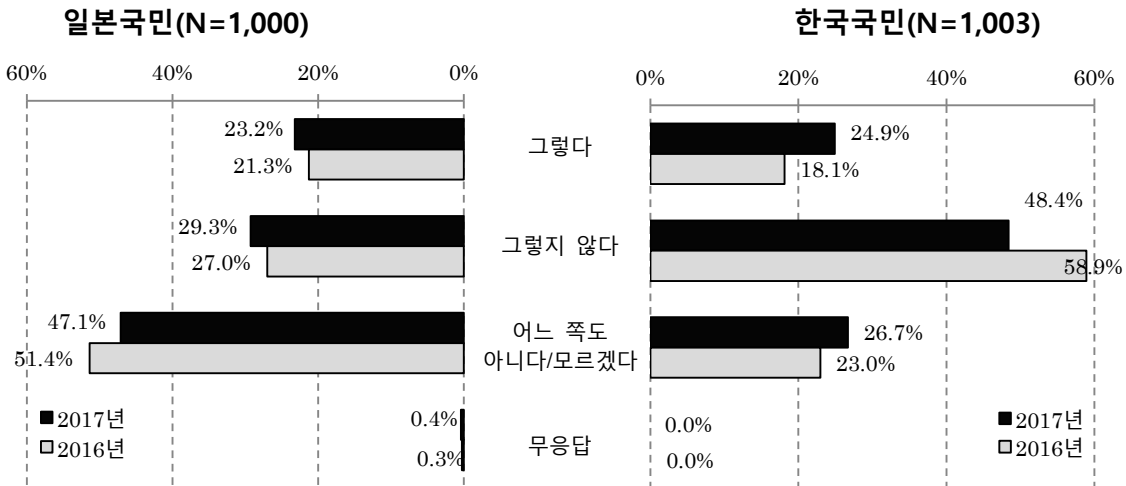
## 12-1. 자국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자국 언론의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한국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그 비율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일본인은 “어느 쪽도 아니다 / 모르겠다”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한국인은 자국의 언론이 한일관계를 보도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4%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58.9%에서 11%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그렇다”는 응답도 18.1%에서 24.9%로 상승하였다.

일본인의 자국 언론의 한일관계 보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쪽도 아니다/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이 47.1%(2016년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9.3%(2016년 27%), “그렇다”는 응답은 23.2%(2016년 21.3%)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림36. 한일관계의 보도에 대해 자국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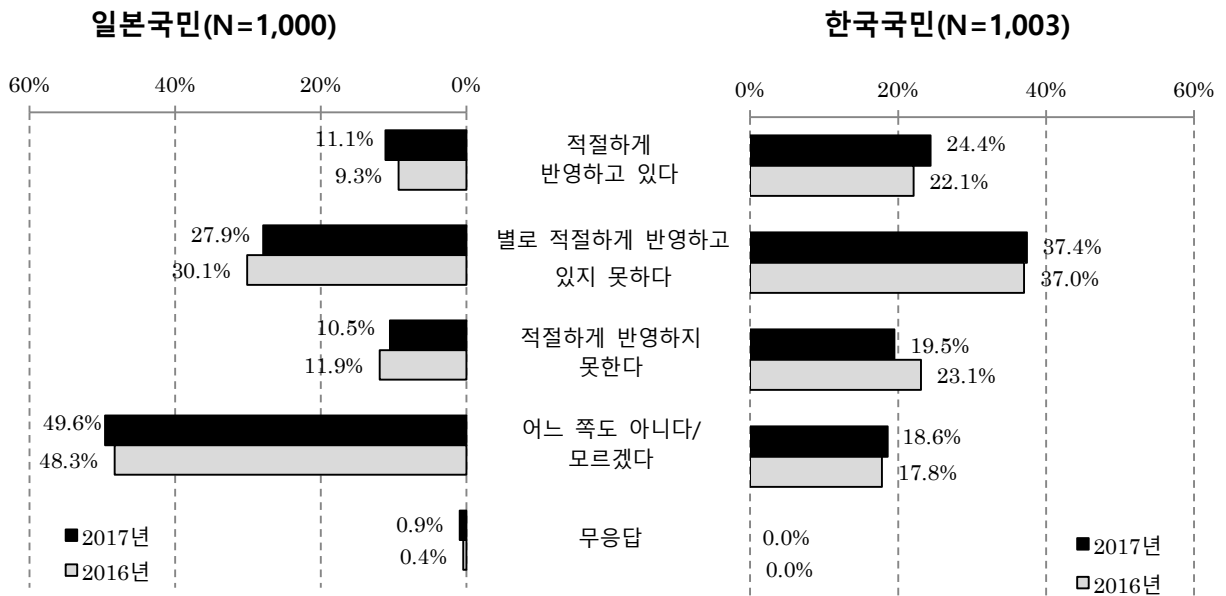
## 12-2. 인터넷상의 여론이 자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한국인의 60%, 일본인 40%가 “인터넷 여론은 자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인은 인터넷 여론이 자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별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가 56.9%(2016년 60.1%)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4.4%(2016년 22.1%)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인은 인터넷 여론이 자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별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가 38.4%(2016년 42.0%)로 40% 가까운 반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1%(2016년 9.3%)로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어느 쪽도 아니다/모르겠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49.6%(2016년 48.3%)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림37 인터넷 여론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 13.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평가

### 13-1.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평가

한국인의 70% 이상, 일본인의 60% 이상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권의 행동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일 양국민 모두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안보문제”를 가장 높게 우려하였다. 한편 “한미, 미일 등의 동맹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에서는 70% 정도로 높지만 일본에서는 30% 정도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정권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과제에 관하여,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 모두 80% 전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면서 일치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올해 1월에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첫째, 세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따른 국제협력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인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1%로 70%를 넘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 8.7%를 크게 웃돌았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3%로 60%를 넘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28.7%로 30% 가까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권이 동북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되는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안보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85.7%로 80%를 넘었다. “무역, 투자 등 경제문제”라는 응답도 70.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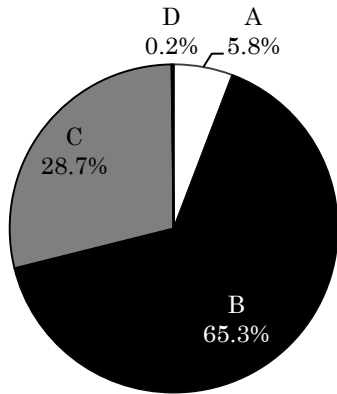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안보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66.4%였으며, “무역, 투자 등 경제문제”라는 응답은 49.6%로 그 뒤를 이었다.

한일의 차이가 현저했던 것은 “한미, 미일 등의 동맹문제”라는 응답으로, 한국인은 72.7%가 이를 선택한 반면, 일본인은 35.4%가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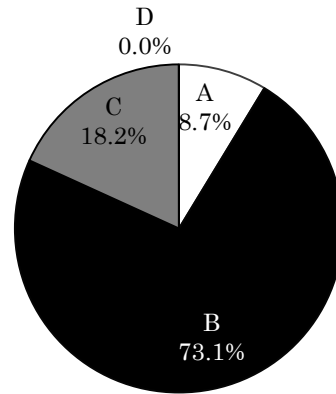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관하여 다자협력이 중요한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인의 77.8%, 일본인 8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일치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림38.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지지 여부】

일본국민(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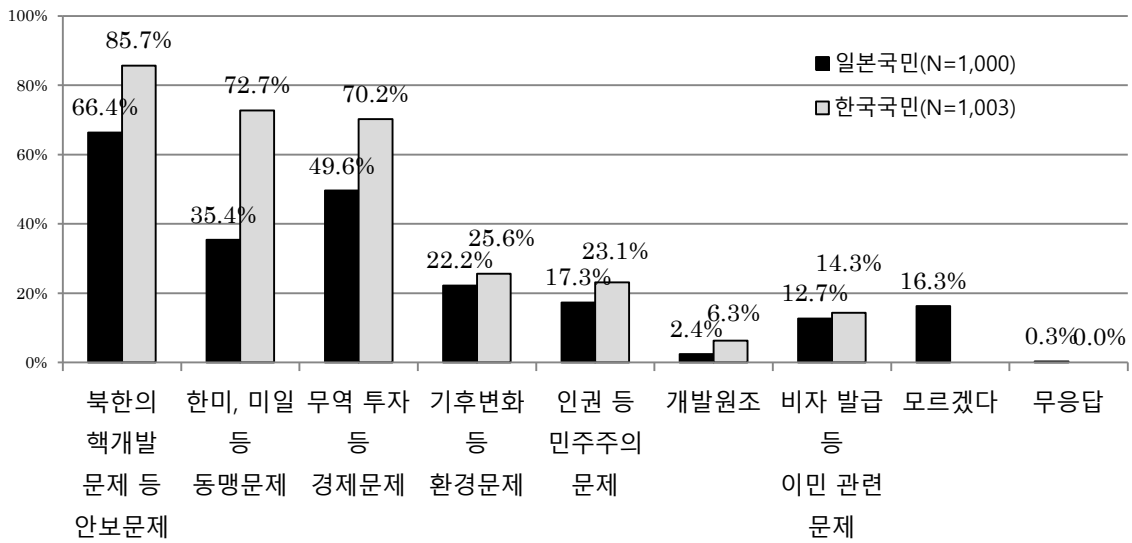


한국국민(N=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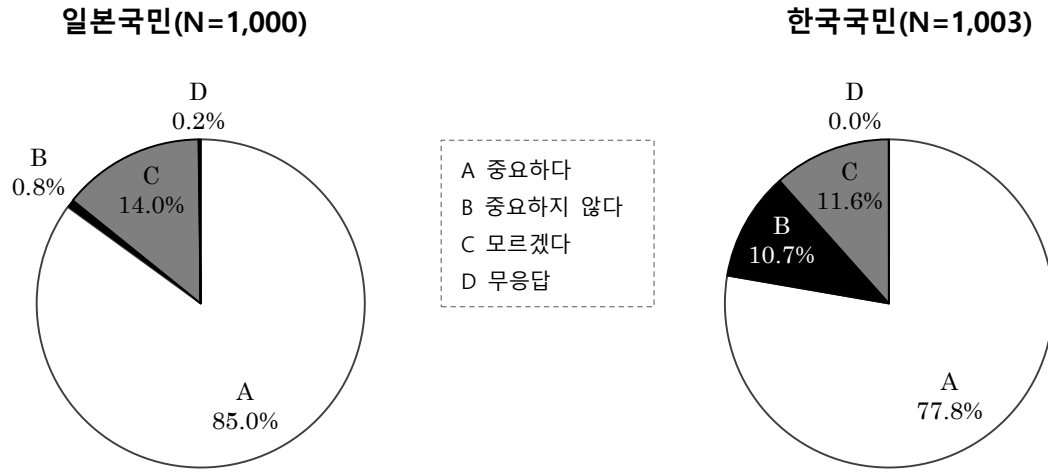


A 지지한다  
B 지지하지 않는다  
C 모르겠다  
D 무응답

【그림39. 트럼프 정권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그림40. 다국간 협력은 중요한가】



## 14. 양국민의 상호 이해의 배경

### 14-1. 한일 양 국민의 직접 교류의 정도

일본인의 한국 방문 경험은 여전히 20%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일본 방문 경험이 한 해 동안 6%포인트 증가하여 30%를 넘었다.

또한 “중국” 방문 경험은 한국인이 많았지만, “미국” 방문 경험은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일본인과 90%의 한국인이 상대국에 대해 친지나 지인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인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7%(2016년 22.7%)로 계속해서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한국인 중에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29.4%보다 증가하여 35.1%로 30%대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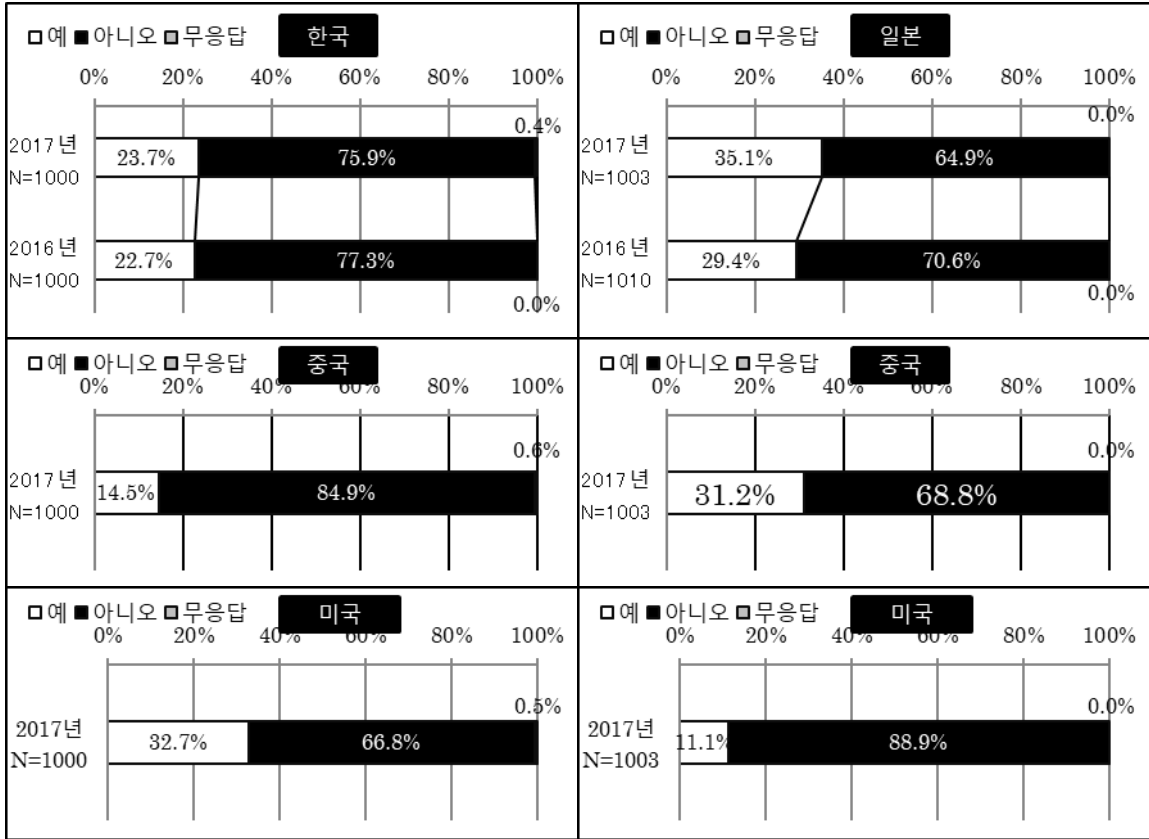
“중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말한 한국인은 31.2%인 반면, 일본인은 14.5%만이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미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32.7%로, 한국인의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국 국민 중에 지인이나 친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은 89.4% (2016년 85.9%), 일본인은 77%(2016년 74.8 %)가 “상대국 국민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있었던 적도 없다)”라고 답하였다. 양 국민 사이에 상대 국가와의 직접적인 교류의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41. 상대국 방문 경험】

일본국민(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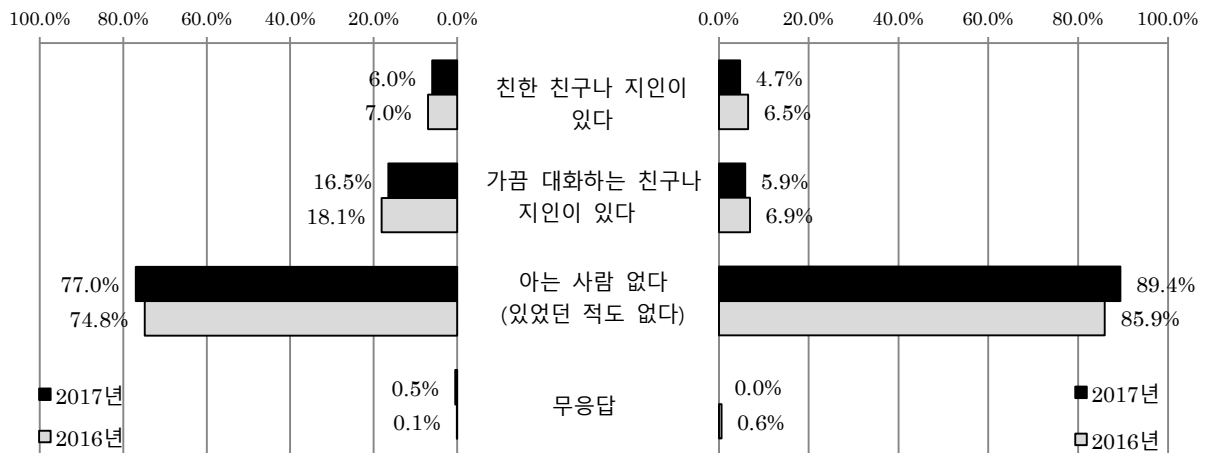
한국국민(N=1,003)



【그림42. 상대국의 지인 유무】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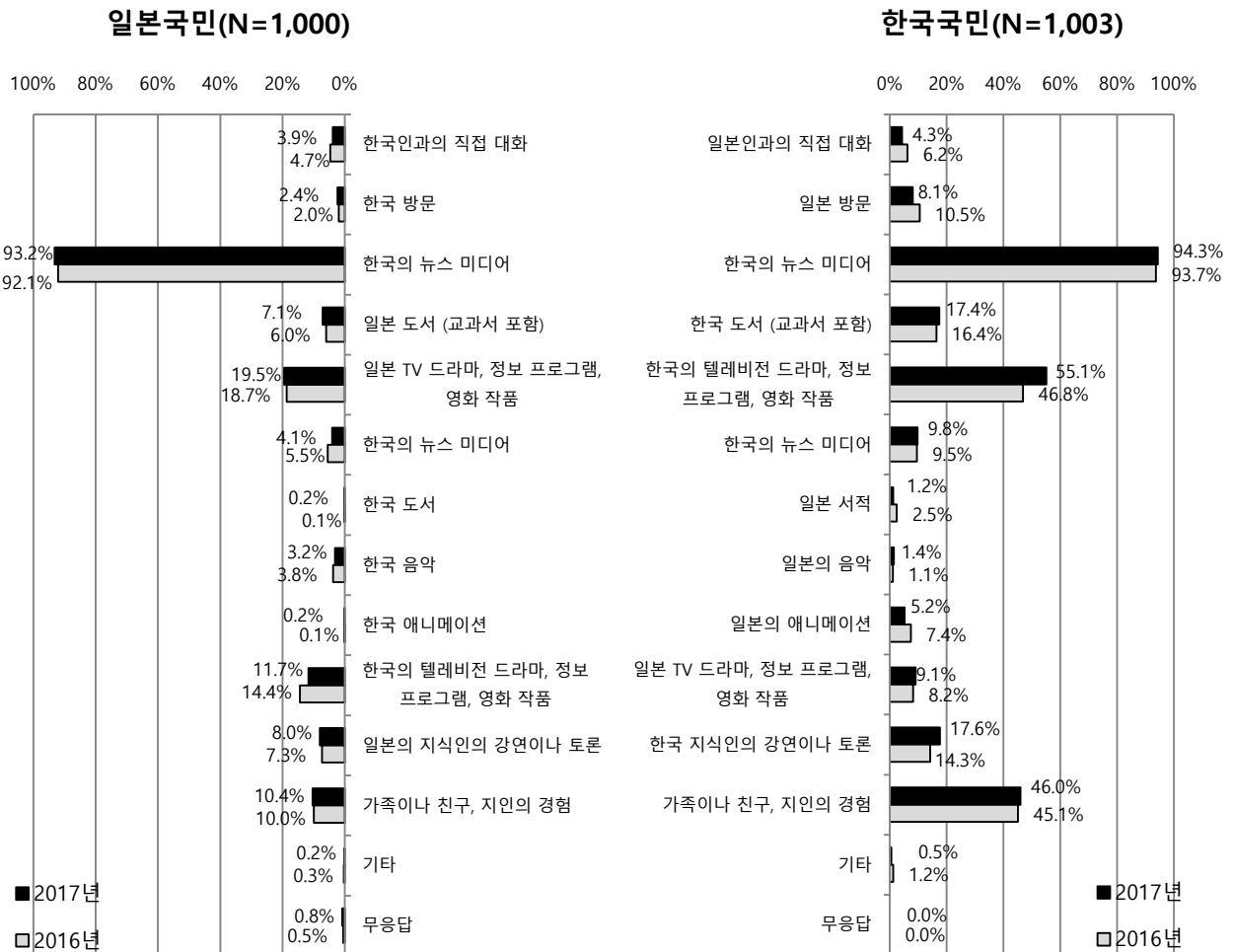


## 14-2. 상대국의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출처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한일 국민 모두 90% 이상이 “자국의 언론매체”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의 영향력이 컸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TV 드라마 등”이나 “가족, 지인 등의 경험”을 정보의 출처로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정보 출처로 90% 이상(한국은 94.3%, 일본은 93.2%)이 “자국의 언론매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TV”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모습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다른 정보 출처로 한국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국 TV 드라마 · 정보 프로그램, 영화 작품”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지난해 46.8%에서 55.1%로 증가하였다. “가족, 지인 등의 경험”을 선택하는 사람도 46%(2016년 45.1%)였으며, 동일하게 응답한 일본인의 응답(10.4%)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43. 상대국 및 한일관계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본 조사에 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재)동아시아연구원

TEL : 02-2277-1683 (내선 107) FAX : 02-2277-1684

[www.eai.or.kr](http://www.eai.or.kr) [eai@eai.or.kr](mailto:eai@eai.or.kr)